경기다문화뉴스

The Gyeonggi Multicultural Family News

PAPAYA STORY

외국인주민을 위한 토탈정보서비스 파파야 스토리

www.papayastory.com

지금 스마트폰에서 papayastory를 검색하세요

제324호 2026년 09월 01일 (격주간) 발행인 겸 편집인 송하성 등록번호 경기 다 50340 전화 031-8001-021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21번길 5(영화동), 3층
인쇄인 장용호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 164 (주)아이피디 / danews1@daum.net 후원계좌 경기다문화뉴스 110-408-662725 신한은행 <1쇄>



"이주배경청소년, 문화를 배우고 즐기다"...'컬처톡(Talk)! 컬처락(樂)!'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지난 8월 14일, 한국 민속촌에서 39명의 이주배경청소년이 참여한 가운데 '컬처톡(Talk)! 컬처락(樂)!'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의 전통문화와 생활양식을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상호존중의 태도를 기르기 위해 마련했다.(관련 기사 3면) 송하성 기자

법무부, 광역형 비자 제도를 지역산업·지역정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법무부는 광역형 비자 제도를 종합평가한 결과,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외국인재의 지역 정주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내·외국인 이해관계자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이번 종합평가에서 광역형 비자 제도는 지역산업의 인력공백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내국인 일자리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산업 수요를 정밀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가족 단위의 정착·소비를 유도하기에 미흡하므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이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광역형 비자를 단순히 외국인 유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지역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선발하고 유학·취업·가족동반·지역정착·소비까지 연계하는 비자 체계로 개편합니다.

외국인의 검증과 선발 절차 강화

법무부는 한국사회 적응도가 높고 역량이 검증된 유학생 등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광역형 비자의 우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어요. 해외 인력은 입국 전 교육이나 한국어 능력 등 사전 검증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광역형 비자 제도를 통해 유학(D-2) 비자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학사 이상 과정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세종학당 한국어 중급1과정 이상 이수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해요.(전문학사는 한 단계씩 낮음)

광역지방정부가 근로자를 추천할 때도 한국어 능력과 지역 정착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선발 절차를 강화합니다.

외국인 가족 동반해 지역 정착 유도

광역형 비자 제도를 통해 유학(D-2) 비자를 취득한 대학생이 졸업 후 지역에 취업할 경우 광역형 특정활동(E-7) 비자 전환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어요. 또한 광역형 비자 제도를 통해 특정활동(E-7)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에게는 지역 내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등 가족 단위 정착과 지역 소비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외국에서 인력을 새로 데려오는 것보다 국내에 있는 외국인을 우선 선발하겠다는 것입니다.

광역지방정부의 관리 책임 강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광역지방정부가 외국인과 동반가족의 지역정착과 사회통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역할을 강화하도록 합니다.

특히, 지역의 산업수요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거쳐 비자를 설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또한 외국인력의 무분별한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2년 쿼터를 기존의 절반 이하인 최대 3천명으로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파파야스토리

지자체별 지면 안내

헤드라인 1 경기도 2 수원 3~10 용인 11~13 구리 14~15 광주 16~18 양평 19 하남 20~21 광명 22~25 이천 26~27 평택 28~32

언어별 지면 안내

중국어 中文 5, 23, 29 베트남어(Vietnamese) Tiếng Việt 23 러시아어 Русский 태국어(Thai) ภาษาไทย 16, 21 영어(English) 12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파파야스토리는 중국어 中文, 베트남어 Tiếng Việt, 러시아어 Русский 태국어 ภาษาไทย 영어 English, 한국어 등 6개 언어로 서비스 합니다〉

섹션별 지면 안내

정책 Policy 2, 21, 29 생활정보 Information 4, 9, 18, 27 나의 학습 My Study 8, 15, 17, 24, 30 이주배경청소년 3, 4 외국인주민 13 보건 Health 14, 22 도서관 Library 9, 14, 16, 25 국제교류 3 주거 Residence 5 복지 Welfare 7, 13 육아 2 교육 Education 10 청년 13 비자 Visa 1 취업지원 5 인권 12, 16, 23 부동산 Real Estate 3 행사 Event 6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격차 해소 논의

정연일 경기도의원, "가능한 해법 하나씩 찾아갈 것"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연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8월 31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및 고양시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도내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지원 격차 해소와 차별 없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어린이집연합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 아동이 국적이나 이용 기관의 유형에 따라 보육·교육 지원에서 차이를 겪지 않도록 유치원 유아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어린이집연합회는 특히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교육 지원이 소관 부처와 재원 체계 등에 따라 달라지면서 동일 연령의 아동 사이에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어린이집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과 제도적 불합리성을 전달했다.

정연일 의원은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문제를 단순한 어린이집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이 국적과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보육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의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의원은 현재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제도의 근거와 재정지원 체계가 여러 법률과 기관에 걸쳐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 9월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사업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치원과 동일한 기준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선례가 있어, 기관 유형을 넘어선 지원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도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답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중앙정부의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과 경기도 차원에서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 조례 개정이나 가능한 해법부터 하나씩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경기도 장난감도서관 97개 지점이 한눈에

1일부터 경기도 공공자원 통합예약시스템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해 31개 시군 내 장난감도서관 97곳의 지점별 종합 안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장난감도서관은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 가정을 위해 운영하는 공공대여 시설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놀이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지점별로 기존 장난감 대여를 비롯해 영유아 도서, 돌·백일상 및 의상, 육아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공공 육아자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민들이 지역의 공공 육아자원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군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마다 흩어져 있던 장난감도서관의 위치와 이용 정보를 경기공유서비스(share.gg.go.kr) 한곳에 담아냈다. 주요 제공 정보는 ▲이용안내(이용대상, 주소, 연락처, 이용시간) ▲회원신청 방법 ▲대여방법 ▲반납방법 등이다. 특히 거주 지역 인근의 지점별 정보를 신속하게 조회할 수 있어 영유아 부모들의 이용 접근성·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도는 이용자가 별도의 내방 없이 경기공유서비스 누리집에서 장난감을 실시간 예약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난감도서관은 책 대신 장난감과 육아용품을 빌려주는 공공 육아지원 공간이다. 장난감 구매 부담 감소와 아동의 다양한 장난감 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시군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 운영한다. 대여 물품은 장난감뿐 아니라 유아 도서, DVD, 돌·백일상 등으로 지역마다 다르며, 이용기간이나 요금도 기관별로 다르다.

송하성 기자

전자영 의원, 기흥역 공항버스 신설 확충 해법 집중논의 눈길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8월 28일 경기도의회 의장실에서 '기흥 공항버스 및 대중교통 개선 간담회'를 열고 기흥역 공항버스 정차와 기흥지역 대중교통 이용 불편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전자영·채명신 도의원, 임현수·신나연·오수정·신민욱 용인시의원, 경기도 버스관리과장·버스정책과장·광역교통정책과장, 경남여객 관계자, 용인시 버스노선팀·버스개선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논의한 기흥역 공항버스 신설·추가 정차와 시내·광역버스 배차 개선 등 주요 교통 현안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기흥역을 중심으로 상갈·보라·상하·신갈·흥덕 등 기흥권 주민들의 인천공항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현재 용인지역에는 김포공항 1개 노선과 인천공항 3개 노선이 운행 중이며, 2025년 기준 공항버스 평균 탑승인원 비율은 57.5%다.

전자영 의원은 "기흥역 안 공항버스 신설을 요구하는 것은 기흥권 전체의 공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이용객 숫자만으로 수요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용이 불편해 아주대 등 다른 지역 정류장이나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주민들의 수요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여객은 "신규노선 개설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지만, 기존 노선 증차나 증회를 할 경우 배차간격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종섭 의장은 "운송업체가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도 고려해야 하지만 주민들이 실제로 겪는 불편 역시 외면할 수 없다"며 "어렵다는 결론에 그치지 말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계속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영 의원은 "신규노선은 물론 기존 노선 증설 및 증차 등 실행 가능한 방안을 하나씩 찾아야 한다"며 "주민 불편에 대해 경기도와 용인시, 운송업체가 함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자영 의원은 "경기도·용인시·경남여객과 후속 협의를 이어가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지난 8월 14일, 한국 민속촌에서 39명의 이주배경청소년이 참여한 가운데 '컬처톡(Talk)! 컬처락(樂)!'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의 전통문화와 생활양식을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상호존중의 태도를 기르기 위해 마련했다.

참가자들은 한국민속촌 방문에 앞서 10개국의 전통문화와 공간을 나라별로 소개하고, 조별로 한국과 각국의 문화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문화다양성 공유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서로 다른 문화와 생활방식을 존중하기 위해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생각하며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에 참가자들은 "각 나라 문화는 근원이 서로 통하지만 자국 환경 속에서 발전하며 저마다 독특한 특징을 갖게 된다. 어느 문화가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 "세계 각지의 문화는 매우 다양하다. 다른 문화를 알기 위해 다른 국가 사람과 소통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을 나누었다.

이후 참가자들은 한국민속촌으로 이동해 전통문화 체험, 공연 관람, 어트랙션 및 공포체험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SDGs(식량), 수원 방문의 해 맞이 지역사회 내 세계문화유산 탐방 등의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며 "관심있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70-4125-3308

송하성 기자

수원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투기성 주택 거래 차단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라 수원시 전 지역의 지정 기간이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 연장된다.

대상 지역은 장안·권선·팔달·영통구 등 수원시 전 지역이다. 외국인이 매수하는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가운데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은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가 허가 대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인 2025년 9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439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6024건보다 27% 감소했다. 경기도는 2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의 66%가 경기도에서 이뤄졌고, 수원은 경기도 내에서 안산·부천·평택에 이어 외국인 주택 거래가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이번 재지정을 계기로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상 거래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투기성 주택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상 거래를 면밀하게 살피겠다"며 "시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주민은 관련 내용을 잘 확인해야겠다.

문의: 수원시 토지정보과(031-5191-2384)

이지은 기자

수원특례시, '제4회 아시아 청년 포럼'...글로벌 창업 생태계 탐방·창업 아이디어 발굴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제4회 아시아 청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청년 (예비)창업가 20명이 참여해 창업 관련 기업·기관을 탐방하고, 글로벌 창업 사례와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아시아 청년 토론회는 수원 청년 (예비)창업가들이 해외 창업 현장을 경험하고, 글로벌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교류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25일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혁신 거점인 '싱가포르 현대 글로벌 혁신센터'를 방문해 혁신 기술 실증 사례를 살펴봤다. 이어 친환경 기술과 지속가능한 도시혁신을 구현한 '가든스 바이 더 베이'를 방문했다.

26일에는 스타트업·기업·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비즈니스·창업 박람회 '아시아 비즈니스 쇼'를 방문해 글로벌 창업·산업 동향을 살펴봤다. 이어 참가자별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자유 주제 탐구 활동을 했다.

27일에는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과 한인회관을 방문했다.

이어 싱가포르 스타트업 생태계를 대표하는 '에이스 싱가포르(ACE.SG)'와 첨단 연구개발(R&D)·기술혁신 거점인 '원-노스(One-North)'를 둘러보고, 마리나 배라지 갤러리에서 수자원 관리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정책을 살펴봤다. 수원시는 해외연수에 앞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4차례 역량강화교육을 했다. ▲싱가포르 창업 생태계 사전 학습 ▲비즈니스 캔버스 작성 ▲투자설명(IR) 프레임워크 설계 ▲선배 기업가와의 대화·창업지원기관 탐방 ▲투자설명(IR) 발표·개별 멘토링 등을 진행했다.

수원시는 향후 성과공유회를 열어 참가자들이 해외연수에서 발굴한 창업 아이디어와 경험을 공유하고, 후속 네트워킹을 이어갈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해외 탐방이 청년들이 글로벌 창업 생태계와 다양한 창업 사례를 직접 경험하고, 현장에서 얻은 아이디어와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 역량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이주배경청소년 가구 지원과 생활안전 강화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내 방은 내가 꾸민다' 활동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본부 후원으로 이주배경청소년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내 방은 내가 꾸민다'(이하 내방내꾸) 사업과 전기안전교육 및 가정 내 전기시설 개선을 위한 재능기부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경제적·환경적 어려움으로 생활에 필요한 가구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 4가정을 지원하는 한편,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전기안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가구 지원을 위한 후원금 500만원을 지원받아 대상자별 생활환경과 욕구 등을 고려해 총 4가구에 후원했다. 지원 대상 청소년에는 책상, 의자, 책장, 침대 등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가구를 지원해 보다 편리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활동은 단순한 물품 및 후원금 전달을 넘어 전문기술을 활용한 재능기부와 청소년 대상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특히 재능기부활동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첫 번째 재능기부 활동은 지난 8월 12일, 18세 이하 이주배경청소년 총 16명을 대상으로 전기안전교육과 가스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전기제품과 콘센트 등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배우고, 전기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재능기부 활동은 지난 8월 19일, 가구 지원 대상 4가구 중 2가구를 별도로 선정해 가정 내 노후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LED등, 콘센트 등을 교체하는 소규모 전기공사를 실시했다. 가스 점검도 함께 진행해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이번 후원과 재능기부가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주배경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활동은 후원금과 전문적인 재능기부가 결합해 청소년의 주거환경과 생활안전을 함께 지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이러한 민·관·지역사회 협력과 나눔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센터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주배경청소년과 가족의 복합적인 어려움에 대응하고, 필요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연계하여 청소년과 가족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송하성 기자





누구나 채우고, 누구나 꺼내가요

'수원 공유냉장고'…나눔의 온기

수원 곳곳에는 누구나 음식물을 채워놓을 수 있고, 음식이 필요한 사람은 가져갈 수 있는,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냉장고가 있다. 수원시가 시민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수원 공유냉장고'이다. '먹거리 네트워크'를 구축해 어려운 이웃을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사랑·나눔·공유 프로젝트'이다.

2018년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권선구에 처음 설치했고, 8년 동안 입소문을 타고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금은 42개소에 공유냉장고를 운영하고 있다. 생활권 중심으로 거점을 넓혀가며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먹거리 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채소를 비롯한 식자재, 과일, 반찬류, 통조림과 같은 가공품, 냉동식품, 음료수, 곡류, 빵, 떡 등을 공유냉장고에 넣을 수 있다. 유통기한 잔여 일이 3일 이상 남은 식품만 공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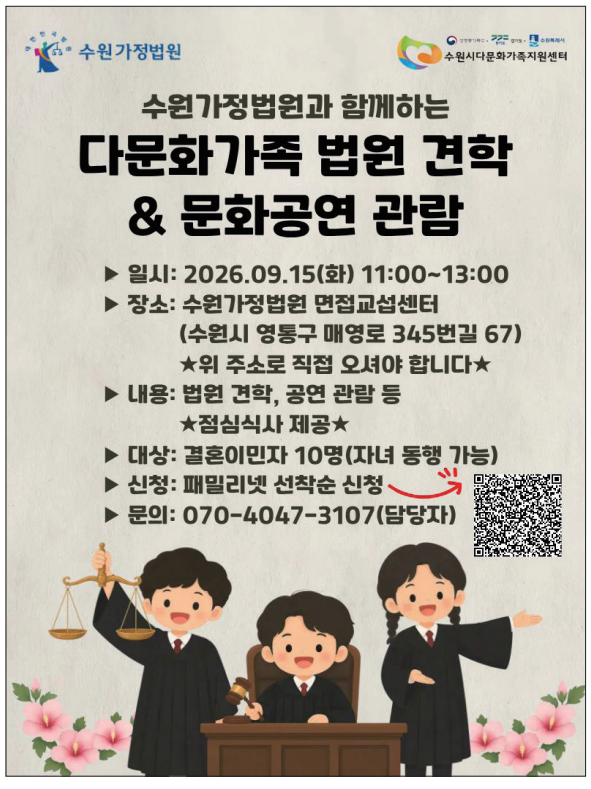
음식이 필요한 사람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가면 된다.

수원시에는 지난 5월 8일부터 해누리푸드마켓(팔달구 매산로 86)에서 운영하고 있다. 곡류·면·빵류 등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 등이 있다.

해누리푸드마켓 '그냥드림'은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공휴일 제외) 운영하는데,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시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2만 원 상당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한다.

처음 방문하는 시민은 자가 점검 후 물품을 수령하고, 2번째 방문하면 기본 상담 후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송하성 기자







내 주변 일자리를 한눈에…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일자리맵' 서비스

수도권 평균 출퇴근 시간 82분…직주근접 고려한 잡아바 '일자리맵' 웹서비스 개시

구직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채용기업 정보를 지도 상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웹서비스가 나왔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도일자리포털 '잡아바'에서 지도 기반 채용정보 서비스 '일자리맵'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일자리맵은 구직자가 현재 위치나 희망 근무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채용정보를 지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 서비스다. 출퇴근 거리와 교통 접근성 등 근무 여건을 함께 고려하는 구직자의 일자리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출퇴근 시간은 임금과 근무조건 못지않게 일자리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 꼽힌다. 통계청의 '2024년 통근 근로자 이동 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직장인의 하루 평균 출퇴근 시간은 82분으로 나타났다. 당근 부동산이 실거래 이용자 9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주거지 선택 기준으로 '직장 이동 및 출퇴근 거리 단축'을 선택한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다. 재단은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해 근무지역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능을 강화했다.

일자리맵은 기존 재단 모바일 앱 '잡아드림'에서 제공하던 지도 기반 일자리 서비스를 PC 환경까지 확장한 것이다. 기존 목록형 검색 방식과 달리 원하는 지역의 채용공고를 지도에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도 화면을 이동하며 주변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어 근무지 위치와 생활권을 함께 고려한 구직활동이 가능하다.

이용자는 현재 위치 또는 원하는 지역을 선택한 뒤 반경을 설정해 주변 채용공고를 한눈에 볼 수 있다. 키워드 검색과 다양한 조건을 활용한 필터 기능도 제공한다. 공공채용과 민간채용을 구분해 조회할 수 있으며, 지도 위 채용공고를 선택하면 상세 모집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기존 경기도 중심의 채용정보 범위를 전국으로 넓혀 지역과 관계없이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

잡아바 일자리맵 서비스는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일자리포털 잡아바에 접속한 뒤 '일자리맵' 메뉴를 선택하거나 일자리맵 누리집(job.gg.go.kr/map.do)에 접속하면 된다. 모바일에서는 '잡아드림' 앱을 통해 주변 일자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재단은 구직자가 채용조건뿐 아니라 근무 위치와 출퇴근 여건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어 일자리 탐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이용자 수요를 반영해 검색 편의성을 높이고 생활권 중심의 일자리 정보 접근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구직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일자리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 기반 서비스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일자리맵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타 시도와 공공기관, 일자리센터 등 다양한 기관으로 서비스를 확대·개방해 더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일자리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Tỉnh Gyeonggi thường xuyên tuyển người thuê nhà theo chương trình thuê lại nhà hiện có dành cho người dân có thu nhập thấp 전세임대주택 상시 신청

Tỉnh Gyeonggi và Công ty Phát triển Đô thị và Nhà ở Gyeonggi (GH) sẽ tuyển thường xuyên người đăng ký tham gia chương trình "Cho thuê lại nhà hiện có năm 2026" kể từ ngày 4/8, nhằm ổn định nhà ở cho các hộ gia đình có thu nhập thấp trên địa bàn tỉnh.

"Cho thuê lại nhà hiện có" là gì?

"Cho thuê lại nhà hiện có" là một trong những chính sách phúc lợi nhà ở đa dạng của Hàn Quốc. Người được lựa chọn làm đối tượng thuê sẽ tự tìm căn nhà mà mình mong muốn. Sau đó, GH sẽ ký hợp đồng thuê nhà (jeonse) với chủ sở hữu căn nhà và cho người được lựa chọn thuê lại căn nhà đó.

Tiền thuê có rẻ không?

Điều kiện thuê nhà rất thuận lợi. GH hỗ trợ tối đa 95% tiền đặt cọc jeonse, với mức hỗ trợ lên đến 130 triệu won. Đối với số tiền được hỗ trợ, người thuê chỉ cần trả cho GH tiền thuê ở mức thấp, khoảng 1,2–2,2%/năm. Người thuê có thể ổn định sinh sống trong thời gian tối đa 30 năm.

Ai có thể đăng ký?

Người dân Gyeonggi có thu nhập thấp và các gia đình đa văn hóa có thể đăng ký. Trước hết, người đăng ký phải là thành viên của hộ gia đình không sở hữu nhà và đang cư trú tại tỉnh Gyeonggi. Ngoài ra, phải đáp ứng ít nhất một trong ba điều kiện sau:

▲ Người đang nhận trợ cấp sinh kế hoặc trợ cấp y tế trong nhóm đối tượng hưởng trợ cấp sinh hoạt cơ bản

▲ Gia đình đơn thân thuộc diện được bảo vệ

▲ Người cao tuổi từ 65 tuổi trở lên thuộc hộ đang nhận trợ cấp sinh hoạt cơ bản hoặc thuộc tầng lớp ngay trên diện nghèo (차상위계층). Người nước ngoài không được đăng ký.

Đăng ký ở đâu?

Người có nhu cầu đăng ký cần đến trực tiếp Trung tâm Phúc lợi Hành chính (행정복지센터) tại nơi cư trú để đăng ký. Sau khi nhận được thông báo từ Trung tâm Phúc lợi Hành chính về việc được lựa chọn làm người thuê nhà, người đăng ký có thể tìm căn nhà mà mình mong muốn.

Việc tiếp nhận hồ sơ được thực hiện thường xuyên cho đến khi có thông báo "kết thúc tiếp nhận hồ sơ". Để biết thêm thông tin chi tiết, vui lòng liên hệ Tổng đài chuyên trách về chương trình cho thuê lại nhà của GH (1588-8056) hoặc truy cập Trang web của Công ty Phát triển Đô thị và Nhà ở Gyeonggi (GH). Trang web GH

Tỉnh Gyeonggi kỳ vọng rằng thông qua đợt tuyển thường xuyên lần này, các hộ gia đình có thu nhập thấp đã bỏ lỡ thời gian đăng ký định kỳ hoặc đang cần hỗ trợ nhà ở khẩn cấp sẽ có thể đăng ký nhà cho thuê theo hình thức jeonse vào thời điểm cần thiết.

Ông Kim Tae-su, Trưởng phòng Chính sách Nhà ở tỉnh Gyeonggi, cho biết: "Để người dân trong tỉnh cần được hỗ trợ về nhà ở có thể ổn định sinh sống tại khu vực mà mình mong muốn, chúng tôi sẽ phối hợp với các thành phố, quận/huyện và GH để tăng cường việc phát hiện đối tượng cần hỗ trợ và cung cấp thông tin hướng dẫn." 〈한글 기사 지난호 1면〉 파파야스토리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제18회

다문화 한가족 체육대회

이주민과 수원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

Multicultural Unity Festival

2026년 9월 19일 (토)

12:00-17:00 @ 수원 제1야외음악당

기념식
Together Day Ceremony

세계음식체험
World Food Experience

모두가 즐기는 체험부스
Fun-filled Booths for Everyone

특집공개방송 : 이주민공연팀/초대가수
Special Live Broadcast : Migrant Performances/Guest Singer

다양한 경품추점
Various Prize Draws

주최 | 수원특례시
주관 | 사회복지법인 수원중앙복지재단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SUWON MIGRANT COMMUNITY SERVICE
후원 |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이주민과 함께 즐긴 수원의 프로 스포츠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제2회 지역이해 프로그램' 진행

수원시국제교류센터는 25일 스타필드 수원과 수원 케이티 위즈파크에서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2026 제2회 수원시 외국인 지역 이해 프로그램-글로벌 스포츠 데이 인 수원'을 열었다.

수원시 외국인 주민 30명과 수원시 공공외교단 6명 등 36명이 참여해 수원의 문화·스포츠 자원을 경험하고 시민들과 교류했다.

참가자들은 공공외교단과 야구 응원문화 퀴즈 풀기 등 교류 활동을 한 뒤 스타필드 수원의 이색 스포츠 공간 '스몹'에서 다양한 스포츠 콘텐츠를 체험했다. 이어 수원 케이티 위즈파크에서 케이티 위즈와 두산 베어스의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했다. 케이티 위즈 치어리더와 야구 응원법을 배우고 함께 응원하며 한국의 야구 문화와 수원의 스포츠 문화를 경험했다. 외국인 주민과 공공외교단은 스포츠를 매개로 함께 활동하며 자연스럽게 교류했다.

참가자들은 "수원의 스포츠 문화를 경험하면서 수원이 더 친근하게 느껴졌다"며 "앞으로도 수원의 다양한 문화·체육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수원시국제교류센터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들이 수원의 다양한 문화와 스포츠를 경험하며 지역사회와 한층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들이 수원을 이해하고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지역이해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국경 없이 하나가 되는 하루' 제18회 다문화한가족축제 19일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어울리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제18회 다문화한가족축제'가 오는 9월 19일(토)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수원 제1야외음악당에서 열린다.

매년 개최되는 다문화한가족축제는 다양한 문화가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화합의 장으로, 올해도 시민과 이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축제는 미8군 브라스밴드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세계인의 날 기념식과 유공자 표창, 다문화특별퍼포먼스, 세계 깃발퍼레이드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또한 공연과 세계문화체험, 국가별 교류공간, 알뜰바자회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이 한자리에서 어우러지는 시간을 마련한다.

행사 관계자는 "이번 축제가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소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문화의 다양성과 화합의 의미를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18회 다문화한가족축제는 외국인주민을 비롯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와 사람을 만나는 특별한 하루가 될 전망이다.

이지은 기자

수원특례시, '2026년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9월 11일까지 2차 신청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임산부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활성화하는 '2026년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의 2차 신청을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받는다.

2차 모집 규모는 725명이다. 1차 모집에서 선정된 3675명을 포함해 올해 총 4400명의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가 수원시인 임산부 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가 신청할 수 있다.

단 각 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 플러스) 지원을 받거나 '2025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선정된 임산부(타 시군 선정자 포함)는 신청할 수 없다.

임신 1회당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자녀는 임신 중 1회와 출산 후 1회를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선정된 대상자는 1인당 연 24만 원 상당 농산물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19만 2000원(80%), 자부담은 4만 8000원(20%)이다.

친환경 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주문해 거주지까지 배송받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은 친환경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에코이몰(https://ecoemall.com)에서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이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8월 26일 오전 9시부터 9월 11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해 9월 16일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9월 1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친환경농산물 등을 공급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임산부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많은 임산부가 신청해 건강한 식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2026년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도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아동 공적확인제도

아동확인증 카드 발급

사업 내용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확인증 카드 발급
(아동 1인 1매)

사업 시군
경기도 10개 시·군
(고양, 화성, 성남, 부천, 안산, 평택, 시흥, 안성, 동두천, 과천)

신청 대상
국내출생, 경기도 거주 중인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시청 또는 시 위탁 센터 방문신청
(방문 전 관할 시 전화문의 / 최초 1회 아동 동반 필수)

구비 서류
부모 신분증, 국내 발행 출생증명서, 아동 사진 파일

혜택
- **어린이집 보육지원금 지급**
- **경기도 공공 의료원 사업 연계**
- **민간단체 지원사업**(의료비, 주거환경 개선, 보육비 등) **연계**

문의처

고양시 031-8075-3347	**성남시** 031-729-3072	**안산시** 031-481-3903
화성시 031-5189-3943	**부천시** 032-625-2927	**평택시** 031-8024-3056
시흥시 031-310-2704	**동두천시** 031-860-2148	
안성시 031-6190-1561	**과천시** 02-3677-2256	

경기도 고양특례시 화성특례시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평택시 시흥 안성 동두천시 과천시

1345 누르고 1 누르면!

인권침해 신고 직통번호

"신고인의 **비밀은 절대 보장**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용방법 지역번호 없이 **1345 누르고 1 누르기**

이용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10시
(오후 6시 이후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상담서비스 운영)

이용대상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은 누구나

제공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20개 언어

Facebook 인권침해 신고센터 바로가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경기도

요즘 날씨에 더위 먹고 병원 다녀오셨나요?

35℃

열탈진 · 열사병 · 열경련
진단 시 **15 만원 지급!**

경기도민이라면
조건 없이 100%
자동 가입!
(보험료 경기도 전액 부담)

이런 증상으로 치료받으셨다면 꼭 청구하세요!

- **열탈진** (땀을 뻘뻘 흘리며 탈수)
  심한 갈증, 두통, 어지러움, 구토 증상으로 수액을 맞거나 치료받은 경우
- **열사병 / 일사병** (체온 상승과 실신)
  높은 온도로 인해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쓰러져 병원 응급실에 간 경우
- **열경련 / 열실신** (근육 경련과 쥐)
  폭염 속에서 활동하다가 팔, 다리, 복부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 치료받은 경우

꼭 확인하세요!
병원에서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으실 때
'온열질환 관련 질병코드'
(예 : T67)
가 적혀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업그레이드 보장 일반 도민 기본 보장

온열질환 진단비	온열질환 응급실내원비	폭염 사망 위로금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감염병 진단비
15만원 (연 1회)	10만원 (사고당)	300만원 (사고당)	30만원 (사고당)	20만원 (사고당)

※ 기후재해 : 폭염, 한파, 호우, 태풍, 대설, 지진 등

2026년 업그레이드 보장 취약계층 (방문건강 대상자, 임산부) **추가 특약**

온열질환 등으로 1일 이상 입원 시 **하루 10만원** (최대 5일)

온열질환 등으로 통원 치료 시 **1회당 2만원** (연 최대 5회)

기후보험 콜센터
신청기한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언제든 가능
02) 2078-4548
(메리츠화재 경기기후보험 보상센터)

필수 서류
❶ 청구서
❷ 진단서(또는 소견서)
❸ 주민등록초본
❹ 통장사본 등

카카오톡 간편 청구 가능!
'경기 기후보험' 채널 추가 후 간편하게 청구하세요!
카톡채널

2026년 비전클래스

ITQ(한글) 자격취득반 모집



기간	26년 9월 8일(화) ~ 11월 26일(목)
시간	매주 화·목 17:30~19:30 [2h]
장소	센터 내 3-3번가
대상	총 12명(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17~24세 이주배경청소년)
내용	ITQ(한글) 자격 취득 대비반 수업 운영, 시험 응시 지원 등
신청	전화 또는 직접 방문 신청 (~8월 31일 까지)
문의	070-4125-3309 정착지원팀 사회복지사 손주영

재단법인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책과 함께 시작하는 9월, 어때?

수원 16개 도서관서 45개 프로그램 운영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16개 수원시도서관에서 다채로운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작가와의 만남 15강좌, 독서문화프로그램 18강좌, 공연, 체험 등 45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중앙도서관은 9월 10일 이정하 시인과의 만남 '내 삶을 풍성하게 하는 시'를, 선경도서관은 9월 20일 정주영 작가와의 만남 '가자! 몬스터 캠핑장으로'를 연다.

김은아 작가(55㎝의 거리, 소음이 화음이 되는 순간, 화서다산도서관), 태원준 작가(대한민국 보물 지도, 광교홍재도서관), 이퐁 작가(인터스텔라 여름방학, 망포글빛도서관)의 강연도 있다.

독서문화프로그램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영상을 만드는 '에이아이(AI) 책 소개 영상 제작: 내 인생의 책'(중앙도서관) ▲1인 가구를 위한 독서·조향 프로그램 '가을밤, 책과 향기로 나를 돌보는 시간'(창룡도서관) ▲한 권의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벽돌책 완독 프로젝트 〈넥서스〉'(매여울도서관) 등이 있다.

그림책과 클래식 연주를 함께 즐기는 '나혜석, 드보르자크를 듣다'(선경도서관, 9월 13일) 등 8개 공연과, 도서와 소풍 꾸러미를 빌려주는 '책소풍 〈북크닉(Book+Picnic)〉'(북수원·대추골·일월도서관, 9월 매주 토·일요일) 등 4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프로그램별 일정과 세부 내용은 각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수원시도서관 통합예약시스템(www.suwonlib.go.kr/reserve/index.do)에서 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독서의 달을 맞아 수원시도서관에서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시민들이 책 읽는 즐거움을 느끼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따뜻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만석공원에서 9월 내내 축제

새빛공원 페스티벌...공연·마켓·체험 등 운영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9월 한 달 동안 만석공원에서 공연과 시민 참여·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2026년 새빛공원 페스티벌'을 연다.

새빛공원 페스티벌은 시민들이 공원에서 여가와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여러 부서의 공원 관련 프로그램을 연계해 운영하는 축제다. 공연, 시장, 문화·체험, 환경·건강 프로그램 등이 만석공원 곳곳에서 이어진다.

주요 행사는 ▲거리로 나온 예술(9월 5일) ▲스테이지 온(6일) ▲제30회 수원백중제(12일) ▲2026 수원 스트리트 아트 밸리댄스(13일) ▲만석 힐링예술축제(20일) ▲시네마 인 만석거(27일) 등이다.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만석 소소시장과 수원팬 상품 벼룩시장, 수원시공유경제한마당, 우리동네 벼룩시장을 비롯해 가족 줍깅, 반려동물 문화교실, 목공놀이터, 탄소중립·자원순환 체험 등을 운영한다. 한가위를 앞두고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한가위 모여락(樂)'도 있다.

시니어댄스 교실과 다도체험 '마음다담', '만석: 바른걸음', '만석들썩 공원탐구', '그린그린 박물관: 감각노트' 등 연령과 관심사에 맞춰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레드서클 캠페인과 자전거 안전교육 등 생활밀착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행사 기간에는 운영관과 포토존 등 부대시설을 마련한다. 프로그램별 일정과 자세한 내용은 '2026년 새빛공원 페스티벌' 홍보물의 큐알(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연과 체험, 휴식을 즐기며 공원에서 특별한 일상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수원특례시, 임산부 지원 강화

산후조리 한약 할인 첫째 출산여성까지 확대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수원특례시한의사회와 협력해 9월 1일부터 '산후조리 한약 할인 사업' 지원 대상을 모든 출산 여성과 임신 16주 이상 유·사산 임산부까지 확대한다.

수원시와 수원특례시한의사회는 19일 수원시청에서 '산후조리 한약 할인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식에는 김은주 수원시 여성가족국장, 강서원 수원특례시한의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여성만 받을 수 있었던 산후조리 한약 할인 혜택이 첫째 자녀 이상 모든 출산 여성으로 확대된다. 임신 16주 이상 유산·사산을 경험한 임산부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지원 대상자는 25만 원 이상 산후조리 한약을 조제하면 10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 금액은 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에서 전액 후원한다. 출산 여성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산후조리 한약 할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한의원에 제출하면 된다. 확대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9월 1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수원시와 수원특례시한의사회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출산 여성과 유·사산 임산부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강서원 수원특례시한의사회장은 "산모들의 건강 회복을 돕는 뜻깊은 사업을 수원시와 함께 확대하게 돼 기쁘다"며 "참여 한의원들과 협력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주 수원시 여성가족국장은 "할인액 전액을 부담하며 사업 확대에 힘을 보태주신 수원특례시한의사회에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 도시 수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9월 수원페이 인센티브 20%

50만 원 충전하면 인센티브 10만 원 지급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20%로 확대한다. 외국인주민도 수원페이를 이용하면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다.

인센티브는 9월 1일 오전 9시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한다. 1인당 충전 한도는 50만 원이고, 50만 원을 충전하면 인센티브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수원페이 보유 한도는 100만 원이다. 잔액을 소비해야 여유분만큼 충전할 수 있다.

수원페이는 수원시에 있는 수원페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 일부 점포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경기지역화폐 앱이나 오프라인 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다. 오프라인 충전소 목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에서 '수원페이 오프라인 충전소'를 검색해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 충전소는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수원페이와 함께 풍성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베트남, 수원 지역사회와 만나다!

이주민·유학생과 지역주민 함께 'D-Day Vietnam'

지난 8월 27일, 원천동 D-SPACE에서 베트남 이주민과 유학생,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문화교류 행사 'D-Day Vietnam'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광교종합사회복지관, DBM(디아스포라브릿지미션),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VIA MISSION 등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더브릿지교회, 그이름교회, 새노래교회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해 더욱 풍성한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는 베트남 음식과 참여 기념품을 준비하고, 이주민과 유학생 참여자를 모집하는 등 행사 준비와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베트남 전통무용팀의 공연을 시작으로 참여자들이 함께 즐기는 레크리에이션과 행운권 뽑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한 한국 음식인 김밥, 잡채, 떡볶이, 베트남 음식인 반미를 함께 나누며 서로의 음식문화를 자연스럽게 체험했다. 참여자들은 정성껏 준비된 음식을 맛보며 베트남의 문화와 생활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던 참여자들도 음식과 공연, 레크리에이션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베트남 이주민과 유학생들은 전통무용과 음식을 통해 자신의 문화를 소개하고, 지역주민들도 새로운 문화와 음식을 경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여러 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마련한 이번 행사는 국적과 언어의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이웃으로 가까워지는 뜻깊은 만남이 되었다.

앞으로도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는 이주민과 지역주민이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교류의 장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자료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환경 관련 직업인에게 진로를 묻다"

수원특례시, 첫 '수원 에코잡데이' 참여자 모집해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환경 분야 진로를 탐색하는 '수원 에코잡데이(SUWON ECO JOB DAY)'에 참여할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청년 180명을 9월 4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처음 열리는 수원 에코잡데이는 환경 분야에서 일하는 현장 실무자와 청소년·청년이 만나 직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진로 연계 환경 멘토링 행사다. 수원시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9월 18~19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3차례 열린다. ▲18일 오후 2시 대학생·청년 60명 ▲19일 오전 9시 30분 중·고등학생 60명 ▲19일 오후 2시 30분 대학생·청년 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청년은 19~34세가 참여할 수 있다.

멘토는 ▲수원시 환경직 공무원 ▲환경단체 활동가 ▲도 교육청 환경 담당 장학사 ▲삼성전자 실무자 ▲환경학과 교수 ▲기상청 공무원 등 6개 분야 환경 관련 직업인이다. 참여자들은 직업별 원탁에서 멘토와 환경 분야의 역할, 실제 업무, 진로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다. 한 원탁에 멘토 1명과 참여자 10명가량이 함께하고, 참여자는 원탁을 이동하며 다양한 직업을 경험한다. 19일 오후 청년 대상 행사에서는 수도권 기상청에서 지원하는 '달콤 기후 거리공연'도 열린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홍보물에 있는 대상별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신청하면 된다. 중·고등학생은 수원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대학생·청년은 수원시에 있는 대학 재학생 또는 수원시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수원화성 곁에 문을 연 '남수헌' 한옥 숙박·전통문화 체험 즐겨요



지난 14일 정식으로 문을 연 수원시 공공한옥 문화시설 '남수헌(南水軒)'이 관광객들이 전통문화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된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수원화성 성곽길 인근(남수동 11-453번지)에 조성한 남수헌은 한옥 숙박, 전통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체류형 복합문화공간이다. 지난 8월 14일 정식 운영을 시작해 시민·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 예약을 받고 있다.

남수헌은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1층은 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문화공간이고, 2층은 한옥숙박공간이다. 문화공간에는 갤러리카페, 한옥 도서관이 있고, 한옥숙박공간에는 한옥객실 12실이 있다.

남수헌은 단순한 숙박 시설이 아니다. 다도(茶道)·명상 체험, 한국건축해설, 전시 등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한다. 숙박·프로그램 예약은 남수헌 홈페이지(www.namsuheon.kr)에서 할 수 있다. 남수헌은 주변 지역 상권, 관광프로그램과 연계해 숙박객들에게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수원시는 남수헌 인근 공방거리, 남문통닭거리 상인회 등과 협력해 남수헌 숙박객에게 지역 상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남수헌 방문객의 발길이 주변 상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수원시는 남수헌을 수원화성 관광특구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수원화성에서 축제가 열리면 수원화성 관광프로그램, 축제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운영하고, 수원화성 성곽길 주변 상권·축제를 묶은 관광 코스를 개발해 하룻밤 머무르며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남수헌은 수원화성의 역사·경관과 한옥의 정취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이라며 "숙박과 문화 프로그램을 결합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특별한 휴식과 경험을 제공하는 수원의 대표 문화·관광 명소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수헌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 콘텐츠를 확장하는 관광 거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족, 소통·유대감 높여요"

용인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관계향상 프로그램 운영

용인시가족센터(센터장 유지영)는 5월부터 8월까지 미취학 자녀부터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함께 ON」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협동·친화 활동을 통해 가족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가족관계를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통 활동으로는 감정카드를 활용한 감정 표현, 가족화 그리기, 우리가족 가랜드 만들기 등을 진행했으며, 협동 활동에서는 주먹밥과 컵과일, 또띠아 롤과 샐러드, 미니 김밥과 어묵탕 등 다양한 요리를 가족이 함께 만들며 소통과 협력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문화체험 및 나들이 활동을 통해 가족이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함께하고 가족만의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 가족들은 "가족 간의 대화가 늘었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가족 간의 유대가 더욱 돈독해진 것 같다" 등의 긍정적인 소감을 전했다.

유지영 센터장은 "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고 한층 가까워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체험형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 증진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송하성 기자

다양한 한국요리에 도전하는 즐거움

용인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요리쿡조리쿡 행복한밥상' 운영

용인시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요리 역량을 키우고 한국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행복한 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기 초급반은 지난 6월에 운영했으며 2기 중급반은 8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용인시 기흥평생학습관에서 운영 중이다.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요리 실습을 통해 쭈꾸미 불고기, 명태회 비빔냉면, 꼬막비빔밥, 우엉잡채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며 한국 음식에 대한 이해와 조리 능력을 높였다. 또한 함께 요리하고 음식을 나누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었다. 2기 중급반에 참여한 결혼이민자들은 "초급반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해 더 다양한 요리에 도전할 수 있어 좋다", "직접 만들어 보면서 요리하는 자신감이 생겼다", "함께 요리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어 즐겁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용인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키우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참여자의 욕구를 반영한 실생활 중심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다양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의 신청 일정 및 참여 방법은 용인시가족센터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하성 기자





용인특례시, 평생학습관 정기 교육 수강생 모집...이주민도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지구 소재 용인시평생학습관이 제3차 정기교육으로 마련한 7개 분야 68개 강좌에 참여할 1080명의 시민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제철 요리 클래스(가을)' 등 조리 분야 13개 ▲'간단 헤어커트' 등 헤어·뷰티 분야 3개 ▲'홈&패션 소품', '플라워 테라피' 등 기술·실용 분야 8개 ▲'에스엔에스(SNS)블로그 만들기' 등 정보화 분야 3개 강좌로 구성됐다.

또 ▲'스페인어', '알기 쉬운 부동산 재테크(야간)' 등 인문·교양 분야 12개 ▲'일상을 그리는 어반스케치(야간)', '수묵화' 등 문화예술 분야 14개 ▲ '한식조리기능사', '제과기능사(야간)' 등 자격취득 분야 15개를 포함해 총 7개 분야 68개 강좌가 마련됐다.

교육은 9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12주간 진행된다. 수강료는 교육 기간과 시간에 따라 3만원에서 9만 원까지로 재료비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19세 이상의 용인특례시민이라면 누구나 들을 수 있다. 시에 주소를 둔 기업의 직장인과 재외국민, 결혼이민자도 가능하다.

신청은 9월 1일부터 3일까지 용인시 평생학습관 누리집(https://lll.yongin.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용인시는 추첨을 통해 수강생을 선발하며, 개강 강좌의 잔여 인원에 한해 선착순으로 추가 모집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시민 누구나 일상 가까이에서 평생학습을 접하고, 새로운 배움과 경험을 통해 삶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Rapid Response System for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Foreign Workers and Compatriots Launched in Full Swing...One-stop Support from Report Filing to Remedy

A society where the human rights of foreigners are respected is a society where the human rights of Korean citizens are also robustly protected. This forms the foundation of a community where everyone lives safely and with dignity.

On July 31, the Ministry of Justice (Minister Jung Sung-ho) held an inauguration ceremony for the ‘Immigrant Human Rights Violation Investigation Team’ at the Government Complex Gwacheon and declared the official launch of a nationwide integrated protection system designed to swiftly investigate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immigrants, including foreign workers and compatriots, and to support the redress of their rights.

The newly launched investigation team serves as an integrated protection system that spans from receiving reports to on-site investigations and providing relief for victims' rights. It operates as a nationwide network linking the Immigration and Foreigners Policy Headquarters with local immigration offices (branches). The "Immigrant Human Rights and Interests Team" of the Ministry of Justice's Immigration and Foreigners Policy Headquarters oversees the investigation team, which is composed of 100 "Immigrant Human Rights Violation Investigation Officers" from 43 immigration offices (branches, sub-offices) across the country. The investigation team will carry out roles such as *preventing and publicizing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immigrants, *inspecting workplace conditions, *preventing and investigating illegal brokers, *conducting on-site investigations, and *supporting the relief of victims' rights. In particular, upon receiving a report of a human rights violation, the team plans to investigate the facts of the harm through a swift on-site response and support the restoration of victims' rights in cooperation with relevant agencies.

In addition, as the risk of heat-related illnesses among foreign workers in agriculture and fisheries has increased due to the recent prolonged heatwave, the inspection team plans to conduct intensive inspections of heatwave response measures by directly touring seasonal workplaces, and actively carry out preventive and educational activities for employers and seasonal workers.

The Immigration and Foreign Policy Bureau of the Ministry of Justice has been operating a dedicated number (1) for reporting human rights violations at the Foreigners' Comprehensive Information Center (1345) since May 27 of this year. In addition, a system for receiving reports via social media has been established to address cases where reporting by phone is difficult due to the lack of a domestic phone number. With the launch of this investigation team, it is expected that more effective human rights protection will be possible as the reception of reports, on-site investigations, and relief of rights are linked into a single integrated system.

At the launching ceremony held on this day, 100 investigators specializing in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immigrants from immigration offices...〈중략〉 파파야스토리





서로 다른 문화를 나누고 이해하며 함께 어울려요!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주민과 1박 2일 화합캠프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김용국)는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평 미리내캠프에서 '외국인주민 1박 2일 화합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에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이주배경청소년 등 서로 다른 국적과 삶의 배경을 가진 외국인주민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일상과 업무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은 상호문화 이해교육, 컬러도미노, 팀별 공동체 활동, 전통문화 체험 등 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협력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상호문화 이해교육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와 생활방식을 단순히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참여자들이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직접 나누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와 한국에서의 경험을 나누며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었다.

컬러도미노와 팀별 공동체 활동에서는 국적과 연령이 다른 참여자들이 한 팀이 되어 공동의 과제를 수행했다. 처음 만난 참여자들도 함께 의견을 나누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으며,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한국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서로의 느낌과 생각을 나누었다.

무엇보다 이번 캠프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이주배경청소년 등 평소 생활환경과 활동 영역이 서로 다른 외국인주민들이 한자리에서 만나 교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여자들은 1박 2일 동안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었다.

김용국 센터장은 "이번 캠프가 외국인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서로를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일상과 업무에서 잠시 벗어나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좋은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취업 준비 청년에 자격증 응시료 지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자격시험 응시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9월 1일부터 자격증·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용인시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미취업청년 자격·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도비와 시비가 각각 1억6147만 원씩 총 사업비 3억 2295만 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거주하는 18~39세 미취업 청년이다. 응시 당시 미취업 상태여야 하며, 1년 미만 단기 노동자는 미취업자로 인정한다.

지원 분야는 ▲토익(TOEIC), 토플(TOEFL) 등 공인 어학 시험 19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1종 ▲국가 전문자격 345종 ▲국가 공인 민간자격 99종 등 총 1005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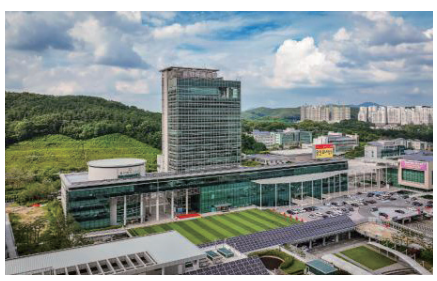
용인시는 하반기 사업으로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응시한 시험에 대해 1인당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응시료를 지원한다.

신청은 9월 1일(화) 오전 9시부터 잡아바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시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고용노동부의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액에 한해 지원한다.

이지은 기자

용인특례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복지·문화 활동비 1인당 20만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6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1차 대상자에게 카드 발급을 마쳤고, 추가 대상자에게는 10월 중 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문화 활동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주관 사업이다.

올해 시는 약 1억 원(도비 2400만 원, 시비 5620만 원, 자부담 2000만 원)을 들여 바우처카드 발급을 신청한 여성농업인 480명에게 1인당 연 20만 원(자부담 4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1차 선정한 402명에게 NH농협은행을 통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했다. 시는 추가 선발한 78명에 대해서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조속히 카드를 발급할 방침이다.

발급받은 카드는 영화관·미용실·안경점·찜질방·농협하나로마트 등 50개 업종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카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용 기간이 지나도 잔액은 이월되지 않는다. 카드 잔액 조회 또는 분실 신고는 NH농협카드 고객센터(1644-4000) 또는 NH페이(NH Pay)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성농어업인단체 활동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여성농업인의 문화적 삶을 지원하는 소중한 제도"라며 "모든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안내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구리시립도서관, 9월 독서의 달 '책으로 빛나는 가을' 선사

구리시 인창·토평·교문방정환·갈매도서관 독서 캠핑, 천문 관측, 공포 체험, 마술쇼 등 풍성



구리시(시장 신동화)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권역별 공공도서관 4곳이 함께하는 다양한 독서 문화 행사를 한 달 동안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야외 체험, 작가 강연, 공연, 특별 강좌, 자료실 행사 등으로 구성되며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모든 연령대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 도서관별 주요 행사는 다음과 같다.

▶인창도서관

인창도서관은 오는 9월 18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도서관 앞마당에서 「읽으면서 빛나는 별빛 책마당」을 주제로 시민과 함께하는 야외 독서 문화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선선한 가을밤 책과 별빛이 어우러진 공간에서 시민들이 독서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독서·창작 체험 공간과 인창천문대 체험 공간, 10분 독서 공간 등을 운영해 가족과 이웃이 책을 매개로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가을밤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별빛 아래 책 한 권'을 주제로 마련되는 독서 휴식 공간에서는 주제별 추천 도서를 읽고 보드게임을 즐길 수 있다. 인창천문대 체험 공간에서는 별과 밤하늘을 관찰하며 독서와 과학이 어우러진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토평도서관

토평도서관은 9월 19일 오전 11시부터 5시까지 도서관 야외 마당에서 「오싹오싹 책마당」을 주제로 독서의 달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무서운 이야기가 주는 긴장감과 즐거움, 이야기 속 괴물과 수수께끼에 대한 호기심을 책과 체험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동화 구연을 비롯해 괴물 가면 만들기, 오싹한 쿠키 만들기, 공포 보드게임, 용기를 주는 마음 돌 만들기 등 흥미로운 체험 공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행사장에서는 「무서운 이야기는 왜 재미있을까?」를 주제로 한 도서 전시를 통해 공포·추리 분야의 인기 도서를 소개한다. 모기장 독서 텐트도 설치해 참여자들이 야외에서 자유롭게 책을 읽고 쉬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문방정환도서관

교문방정환도서관은 9월 5일 이한준 동화 작가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9월 12일 어린이 대상 특별 강연을 운영한다. 이어 9월 16일에는 전래동화를 각색한 인형극 「호랑이 뱃속에서 생긴 일」을 공연해 지역 어린이들에게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서관 도장 찍기 여행과 엽서 꾸미기 등 다양한 참여 행사와 전시도 운영한다.

▶갈매도서관

갈매도서관은 9월 한 달간 자료실 행사와 그림책 원화 전시를 운영하고, 야외 행사 「9월엔 자연 속 책 마실」을 개최한다. 야외 행사는 9월 1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갈매동 복합청사 1층 앞마당에서 진행된다.

지역 서점 장터를 비롯해 독서 캠핑 공간, 야외 마술 공연, 지난 호 잡지 나눔, 체험 공간 등 독서와 체험이 어우러진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서관의 「경기도 전역 독서 문화 활성화 추진사업」에 선정돼 갈매도서관과 경기도서관이 함께 추진한다.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일상에서 소소한 독서의 즐거움을 다시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자료실에서는 9월 한 달 동안 '책 취향 밸런스 게임'과 '내 손으로 찾는 비밀 도서' 등 독서 행사와 함께 그림책 원화 및 주제별 추천 도서 전시를 상시 운영해 시민들이 책과 더욱 친숙해질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프로그램별 참여 대상과 모집인원, 운영 기간 등은 도서관마다 다르며, 참여 신청은 구리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립도서관 누리집(www.gurilib.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가을의 문턱에서 책과 함께하는 시간은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고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며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도서관에서 마련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책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며 책과 문화가 일상에 스며드는 '동화 같은 구리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구리시, 지역 의료 협의체...감염병 공동 대응 방안 논의



구리시(시장 신동화)는 8월 25일 구리시보건소 회의실에서 감염병 재난과 신종 감염병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2026년 제3회 구리시 지역 의료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기관 간 협력을 이끌 기관별 책임자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관별 역할과 임무를 공유했으며,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구리시보건소는 감염병 대응 총괄기관으로서 상황 관리와 역학조사, 방역 대책 수립 및 대응을 총괄한다. 구리경찰서는 교통·시설·인력을 통제하고 현장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를 맡으며, 구리소방서는 환자 구조와 응급 이송 등 긴급 대응을 수행한다.

구리시의사회와 응급의료기관은 환자 진료와 격리, 의료지원 및 의료 자원 연계 등 지역 의료 대응을 담당한다. 참석기관들은 기관별 역할을 재확인하고 감염병 재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감염병 재난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평소 기관 간 협력과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지은 기자

주민 곁으로 찾아가는 '고혈압·당뇨병 교실'

구리시(시장 신동화)는 심뇌혈관 질환의 선행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8월 28일 교문1동 농업인회관에서 '우리 동네 고혈압·당뇨병 건강 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지역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생활 밀착형 보건 서비스다. 만성질환의 조기 발견과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사와 맞춤형 건강 상담, 질환 예방 교육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이지은 기자

구리시가족센터 아이돌봄팀

아이돌봄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안전한 돌봄을 위해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아이돌봄팀 대표번호
031-551-3133

- **시간제서비스(기본)** —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긴급돌봄서비스** — 긴급하게 양육 공백이 생겨 돌봄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당일 2시간 전까지 돌봄 서비스 요청 가능
- **경기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중위소득 150% 이하 혹은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혹은 복지로 정부신청
(소득기준에 따라 유형 판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www.idolbom.go.kr)

서비스 신청 (홈페이지, 앱, 수기신청)

서비스 이용 2일 전 요금 납부
(서비스 시작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취소 수수료 발생)

구리시가족센터 상담사례팀

가족돌봄 (온가족보듬)

가족 구성원의 일시적 장기적 부재, 상황적 위기 등으로
가족기능이 약화된 가족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
가족 유형 특성에 따른
맞춤형 가족기능강화 서비스 운영

가족상담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가족 내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모-자녀간, 부부간 가족관계 개선, 이혼 전후 가족상담 등 다문화가족 및 비다문화가족 대상 가족상담 제공

☎ 070 - 4159 - 2031 / 070 - 7776 - 0071

개인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취약·위기가족 지원

취약·위기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해결 및 욕구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도모

☎ 070 - 7775 - 6549 / 070 - 7775 - 6976

사례관리

가족기능이 취약한 1인가구 한부모 조손가족 및 긴급위기가족 등에게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학습정서지원	자녀의 부족한 기초학습지도 및 정서지원
생활도움지원	긴급일시돌봄, 활동지원, 정서지원
생활용품지원	가정당 연 10만원 이하 생활용품 전달
긴급위기지원	심리정서·긴급돌봄·심리상담연계

교육·문화프로그램

가족관계 향상, 가족돌봄, 일상돌봄, 경제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및 가족 간 유대감 형성을 위해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지역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례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역기관과의 협력,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등을 위한 네트워크 기반 마련

구리시가족센터 가족사업팀

한국어교육

구리시 관내 결혼이민자 대상 정규 한국어 수업 진행
※ 특강(토픽, 발음교정), 국내 적응 현장체험 프로그램 등 포함

☎ 031 - 556 - 4139



위(WE)대한 댄서

부모 자녀가 함께하는 K-POP 댄스교실
06.20 ~ 10.18 매주 토요일 15:00~17:00

☎ 070- 7776 - 2978

부모교육

자녀 성장주기 맞춤별 부모교육 제공
- 영유아기 | 아동기 | 학령기 | 청소년기

☎ 070 - 8895 - 9263

다공방 다양한 언니들의 공방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취창업 공간 제공,
취업 소양 강화 및 취창업 동기 부여

구리시여성행복센터 행복동 1층
☎ 070 - 4149 - 4908

다가온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다문화사회 문화감수성 증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형성

"걸어서 다가온" : 구리시민·유치원·어린이집 대상
다양한 나라의 풍습과 문화 이해 프로그램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1층

문화다양성이해교육 지역주민인식개선사업

구리시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등 기관 대상
다문화감수성향상교육 진행
(다양한 문화 소개, 체험, 교육)

☎ 070 -7775 - 6978

이중언어교육지원

구리시 관내 학령기 다문화·비다문화자녀 대상
베트남어·중국어 이중언어 수업 제공,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 (부모교육 등) 진행

☎ 070 - 7776 - 2978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구리시 관내 결혼이민자, 다문화자녀, 중도입국자녀 중 센터 내방이 어려운 가족에게 방문교육 제공

☎ 070 - 7776 - 2978

다양한 가족 자조모임 사업

결혼이민자의 네트워크 형성 지원,
자조모임을 통한 유대감 형성과 사회통합기반마련

☎ 031 - 556 - 4139



각자의 꿈을 향한 '토픽반' 힘찬 출발

광주시가족센터, 한국어능력시험(TOPIK)반 개강해

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수희)는 지난 8월 20일 하반기 토픽반을 개강했다.

이번 토픽반에는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수강생들이 참여한다. 수강생들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급수 취득을 비롯해 한국어 실력 향상, 취업과 진학 등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수강생은 TOPIK 시험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을 높이고, 각자의 목표에 맞는 급수를 취득하기 위해 함께 공부하고 있다. 또한 서로의 학습 경험을 나누고 격려하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수희 센터장은 "참여자마다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필요한 한국어 수준은 다르지만, 서로 배우고 응원하는 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수강생들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 한국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반기 토픽반은 8월 20일~11월 12일까지 운영되며, 교육 관련 문의는 광주시가족센터 한국어교육담당자(☎070-4706-3742)에게 하면 된다.

송하성 기자

광주시립도서관, 9월 독서의 달 맞아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 운영

광주시립도서관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시민들이 책과 도서관을 한층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그냥 좋아書(서)'를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독서의 달 행사에서는 ▲제적 및 단기 연체 회원 구제 ▲지난 연도 잡지·제적 도서 나눔 ▲주말 가족극장 ▲자료실 대출 이벤트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특히, 자료실 대출 이벤트는 지난 행사에서 큰 호응을 얻었던 '틀린 글자 찾기'와 '도서 대출 빙고'로 구성됐다.

최근 유행하는 활자 친화 문화(텍스트 힙) 유행을 반영해 난이도를 다변화함으로써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문해력 향상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했다. 공통으로 진행되는 행사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도서관을 방문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현장에서 바로 참여할 수 있다.

광주시립도서관 10개 관은 공통 행사 외에도 관별 특색을 살린 고유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클래식 공연을 비롯해 작가 초청 특강, 광주시 '올해의 한 책' 연계 특강 및 체험 교실 등 다채로운 도서 문화 콘텐츠를 선사할 예정이다.

031-760-5680 이지은 기자

เริ่มเดินหน้าระบบรับมือการละเมิดสิทธิมนุษยชนของ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และชาวต่างชาติผู้มีเชื้อสายเกาหลีอย่างรวดเร็วและเต็มรูปแบบ 법무부,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출범

สังคมที่เคารพสิทธิมนุษยชนขอ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คือสังคมที่สิทธิมนุษยชนของประชาชนชาวเกาหลีได้รับการคุ้มครองอย่างเข้มแข็งเช่นกัน สิ่งนี้เป็นรากฐานของชุมชนที่ทุกคนสามารถดำรงชีวิตได้อย่างปลอดภัยและมีศักดิ์ศรี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 (รัฐมนตรีจองซองโฮ) ได้จัดพิธีเปิดตัว "คณะสำรวจการละเมิดสิทธิมนุษยชนของผู้ย้ายถิ่น" เมื่อวันที่ 31 กรกฎาคมที่ผ่านมา ณ ศูนย์ราชการกวาชอน และประกาศการเปิดตัวอย่างเป็นทางการของระบบคุ้มครองแบบบูรณาการทั่วประเทศ ซึ่งจะดำเนินการตรวจสอบ การละเมิดสิทธิมนุษยชนต่อผู้ย้ายถิ่น เช่น 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และชาวต่างชาติผู้มีเชื้อสายเกาหลีอย่างรวดเร็ว พร้อมสนับสนุนการเยียวยาสิทธิ

คณะสำรวจที่เปิดตัวในครั้งนี้เป็นระบบคุ้มครองแบบบูรณาการที่เชื่อมโยงตั้งแต่การรับแจ้งเหตุ, การตรวจสอบในพื้นที่, ไปจนถึงการเยียวยา สิทธิของผู้เสียหาย โดยดำเนินงานในรูปแบบเครือข่ายทั่วประเทศที่เชื่อมโยงสำนัก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และนโยบา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กับสำนัก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และชาวต่างชาติ(สำนักงาน)ในภูมิภาค

ทีม「สิทธิมนุษยชนและสิทธิประโยชน์ของผู้ย้ายถิ่น」สังกัดสำนัก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และนโยบา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 เป็นผู้รับผิดชอบดูแลและบริหารคณะสำรวจโดยรวม โดยคณะสำรวจประกอบด้วย "เจ้าหน้าที่ผู้รับผิดชอบการตรวจสอบการละเมิดสิทธิ มนุษยชนของผู้ย้ายถิ่น" จำนวน 100 คน จากสำนัก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และ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สำนักงานและสำนักงานสาขา) ทั่วประเทศ 43 แห่ง

คณะสำรวจจะดำเนินบทบาทต่าง ๆ ได้แก่ ▲การป้องกันและประชาสัมพันธ์เกี่ยวกับการละเมิดสิทธิมนุษยชนของผู้ย้ายถิ่น ▲การตรวจสอบสภาพความเป็นจริงของสถานประกอบการ ▲การป้องกันและตรวจสอบนายหน้าผิดกฎหมาย ▲การตรวจสอบในพื้นที่ ▲การสนับสนุนการเยียวยาสิทธิของผู้เสียหาย เป็นต้น โดยเฉพาะอย่างยิ่ง เมื่อมีการรับแจ้งการละเมิดสิทธิมนุษยชน จะดำเนินการ ตรวจสอบข้อเท็จจริงเกี่ยวกับ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ผ่านการเข้าตรวจสอบในพื้นที่อย่างรวดเร็ว และมีแผนที่จะร่วมมือกับหน่วยงานที่เกี่ยวข้องเพื่อ สนับสนุนการฟื้นฟูสิทธิของผู้เสียหาย

นอกจากนี้ เนื่องจากความเสี่ยงต่อโรคที่เกิดจากความร้อนของ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ในภาคเกษตรและประมงเพิ่มสูงขึ้นจากคลื่นความร้อน ที่ยังคงเกิดขึ้นอย่างต่อเนื่องในช่วงที่ผ่านมา คณะสำรวจจะลงพื้นที่ตรวจสอบสถานประกอบการที่จ้างแรงงานตามฤดูกาลโดยตรง เพื่อมุ่งตรวจสอบสถานการณ์การรับมือกับคลื่นความร้อนอย่างเข้มข้น และจะดำเนินกิจกรรมป้องกันและให้คำแนะนำแก่ผู้ประกอบการและแรงงานตามฤดูกาลอย่างจริงจัง

สำนัก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และนโยบา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 ได้จัดตั้งและเปิดให้บริการหมายเลขเฉพาะสำหรับแจ้งการละเมิด สิทธิมนุษยชน (กด 1) ที่ศูนย์ให้คำปรึกษาชาวต่างชาติแบบครบวงจร (1345) ตั้งแต่วันที่ 27 พฤษภาคมของปีนี้ และเพื่อรองรับกรณีที่ไม่ สามารถแจ้งเหตุทางโทรศัพท์ได้ เนื่องจากไม่ได้เปิดใช้หมายเลขโทรศัพท์ใน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 จึงได้จัดทำระบบรับแจ้ง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ผ่าน SNS ควบคู่กันไปด้วย คาดว่าการเปิดตัวคณะสำรวจในครั้งนี้จะทำให้การรับแจ้งเหตุ, การตรวจสอบในพื้นที่, และการเยียวยาสิทธิ เชื่อมโยงกัน เป็นระบบเดียวแบบบูรณาการ ส่งผลให้สามารถคุ้มครองสิทธิมนุษยชนได้อย่างมีประสิทธิผลมากยิ่งขึ้น

ในพิธีเปิดตัวคณะสำรวจในวันดังกล่าว เจ้าหน้าที่ผู้รับผิดชอบการตรวจสอบการละเมิดสิทธิมนุษยชนของผู้ย้ายถิ่นทั้ง 100 คน จากสำนักงาน 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และ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สำนักงานและสำนักงานสาขา) ทั่วประเทศ ได้ร่วมกันอ่านคำประกาศคุ้มครองสิทธิมนุษยชน และให้คำมั่น ว่าจะเคารพสิทธิมนุษยชนของผู้ย้ายถิ่น พร้อมทุ่มเทอย่างเต็มที่ในการตรวจสอบโดยยึดผู้เสียหายเป็นศูนย์กลางและการเยียวยาสิทธิ

รัฐมนตรีว่าการ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 จองซองโฮ กล่าวในคำกล่าวให้กำลังใจว่า "การเปิดตัว「คณะสำรวจการละเมิดสิทธิมนุษยชนของผู้ย้ายถิ่น」...〈중략〉 파파야스토리

광주시 GWANGJU CITY

아빠-자녀관계증진프로그램

아빠와 함께 우주여행 간 DAY

활동내용 아빠와 함께하는 별자리 교육(별과 우주 이야기), 천체 관측 — 엄마 참여 X

일 시 9월 17일(목) 19:00~21:00(2H)

참여대상 관내 아빠-초등 저학년 자녀(2019년생~2017년생) 1인으로 구성된 25가족

1순위	2순위	3순위
신규 참여 가족 (2026년 아빠-자녀관계증진프로그램 미참여)	기존 참여 가족	선착순

우선 순위 기준으로 선정하되, 같은 순위에서는 선착순으로 참여가 확정됩니다.

신청기간 8월 14일(금) 14시~9월 3일(목)

2026.9.4.(금), 순차적으로 참여 확정 연락 예정입니다.

장 소 광주시가족센터 및 야외 테라스(광주시복지행정타운)

신청방법 참여하는 아빠와 자녀를 신청란에 기재해 주셔야 정상 접수 됩니다.

센터 홈페이지 접속 → 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 프로그램 안내-프로그램 홍보 → 아빠와 함께 우주여행 간 DAY

"참여하지 못하는 자녀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른 날 아빠와 단둘이 데이트를 즐겨주세요."

[필수사항] 프로그램 참여 확정 후 취소 및 당일 불참 시, 추후 센터 프로그램 참여에 제한이 있습니다.
참여자는 우선 순위에 의해 확정되며, 확정 이후 아빠와 자녀는 필수로 회원가입 해주셔야 합니다.
다수의 참여자가 신청하면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며, 참여 확정 연락을 받지 않을 시 신청이 취소됩니다.
[문의사항]: 070-4706-3622(가족성장팀)

가족센터 광주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

광복의 빛을 찾아서

8.15 대한민국만세 광복절

★ 우리 역사 속 광복의 의미를 배우고,
다양한 역사문화 현장을 직접 체험해 보세요! ★

1회기	2회기	3회기
9월 12일(토) 10:30~12:30	9월 20일(일) 9:00~16:00	10월 18일(일) 9:00~16:00
센터 교육장	현장체험	현장체험
사통팔달 역사강의	서대문 형무소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3회기 전체 참여 가능한 아동을 모집합니다.

참가자 모집

- 대상자 : 다문화가족 초등학교 3, 4, 5, 6학년 자녀 (20명)
- 모집기간 : 2026.8.21(금) 8:00~9.6(일) 18:00
- 내용: 센터 집결 후 전세버스로 이동, 중식 및 간식 제공
- 신청방법
  가족센터 홈페이지 -프로그램 신청 -'역사체험학습' 신청 (자녀 이름으로 신청)

중요! QR 신청

☎ 문의 : 070-4706-3618 (기초학습지원 담당자)

가족센터 광주시가족센터

Hỗ trợ giáo dục cơ bản dành cho con em gia đình đa văn hóa

ĐI TÌM ÁNH SÁNG NGÀY GIẢI PHÓNG

8.15 대한민국만세 광복절

Hãy cùng tìm hiểu ý nghĩa của ngày Giải phóng lịch sử dân tộc
và trực tiếp trải nghiệm những địa danh lịch sử – văn hóa đa dạng!

Buổi 1	Buổi 2	Buổi 3
từ 10h30 đến 12h30 thứ Bảy ngày 12 tháng 9 Phòng học Trung tâm	từ 9h đến 16h Chủ nhật ngày 20 tháng 9 Trải nghiệm	từ 9h đến 16h Chủ nhật ngày 18 tháng 10 Trải nghiệm
Bài giảng tìm hiểu lịch sử từ nhiều góc độ	Nhà tù lịch sử Seodaemun	Viện bảo tàng lịch sử Hàn Quốc

Chỉ nhận đăng ký các em học sinh có thể tham gia đầy đủ cả 3 buổi

Tuyển học viên

- Đối tượng : 20 em học sinh lớp 3,4,5,6 là con em gia đình đa văn hóa
- Thời hạn đăng ký : từ thứ Sáu ngày 21 tháng 8 đến 18h Chủ nhật ngày 6 tháng 9
- Nội dung : Tập trung tại Trung tâm sau đó di chuyển bằng xe buýt
  Cung cấp bữa ăn trưa và ăn vặt
- Cách đăng ký
  Trang chủ Trung tâm gia đình thành phố Gwangju -Đăng ký chương trình -Đăng ký 'Giáo dục trải nghiệm lịch sử' (Đăng ký bằng tên của trẻ)

Đăng ký bằng mã QR

Quan trọng

☎ Tư vấn : 070-4706-3618 (Người phụ trách Hỗ trợ giáo dục cơ bản)

가족센터 광주시가족센터

多文化家庭子女基础学习支援

寻找光复之光

8.15 대한민국만세 광복절

★学习我们历史中光复的意义，
亲身体验多样的历史文化现场！★

1期	2期	3期
9月 12日(土) 10:30~12:30	9月 20日(日) 9:00~16:00	10月 18日(日) 9:00~16:00
中心教室	现场体验	现场体验
四通八达 历史讲座	西大门 监狱历史馆	大韩民国 历史博物馆

招募可参加3次全课程的儿童

招募参与者

- 对象 : 多文化家庭小学3，4，5，6年级子女（20名）
- 招募期间 : 2026.8.21(金) 8:00~9.6(日) 18:00
- 内容: 中心集合后，统一乘坐包车前往，提供午餐及点心。
- 申请方法:
  家庭中心网站 -活动申请-'历史体验学习' 申请(子女名义申请)

중요! QR 申请

☎ 咨询 : 070-4706-3618 (基础学习支援 负责人)

가족센터 광주시가족센터

9월 추석 맞아 최대 20% 혜택

광주사랑카드 예산 증액...이주민도 이용해



광주시는 지역화폐인 '광주사랑카드' 예산을 대폭 확대해 오는 9월부터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광주사랑카드는 높은 이용 수요로 매월 충전 지원금(인센티브)이 조기에 소진되는 등 시민들의 이용이 지속됐다.

광주시는 시민들의 혜택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인 발행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기본 혜택 요율과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1인당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충전 금액의 8%가 충전 지원금으로 제공된다.

이와 함께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석 명절 광주사랑카드 환급(캐시백) 행사'도 추진한다. 행사 기간은 9월 14일부터 10월 3일까지다. 행사 기간 광주사랑카드 가맹점에서 일반 충전금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2%를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지급 한도는 10만 원이다. 행사 기간 누적 결제액을 기준으로 하며 민관 협력 배달앱 결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9월 광주사랑카드를 이용하는 시민은 기존 충전 지원금 8%와 추석 환급금 12%를 함께 적용받을 경우 최대 2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관열 시장은 "이번 지원 확대와 명절 행사를 통해 고물가 속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는 한편, 명절 소비가 지역 골목상권으로 선순환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태화산 무장애 나눔 길' 조성

광주시, 보행약자 위해 1.2km 친환경 숲길

광주시는 '2026년 녹색자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도척면 태화산 일원에 보행약자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태화산 무장애 나눔 길' 조성 사업을 21일 착공했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영유아 등 이동이 불편한 보행약자가 안전하게 숲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산림 복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총사업비 10억 원 중 5억 원은 복권 기금으로 조성된 녹색자금으로 충당한다. 광주시는 도척면 태화산 일원에 약 1.2㎞ 규모의 무장애 나눔 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구간은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최대 경사 8도 이하, 폭 1.8m 이상으로 설계됐다. 또한, 국산 목재 산책로와 친환경 황토 포장재를 도입해 탄소 저감 및 산림 보전에 기여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한다. 구간마다 휴게시설과 안전시설을 설치해 숲 체험과 휴식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관열 시장은 "태화산 무장애 나눔 길은 평소 산림 혜택을 누리기 어려웠던 보행약자도 불편 없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돕는 뜻깊은 사업"이라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숲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녹색자금은 복권 수익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산림환경 보호와 산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이지은 기자

청년기본소득 9월부터 접수

광주시, 연간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광주시는 오는 9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월 2일 오후 6시까지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6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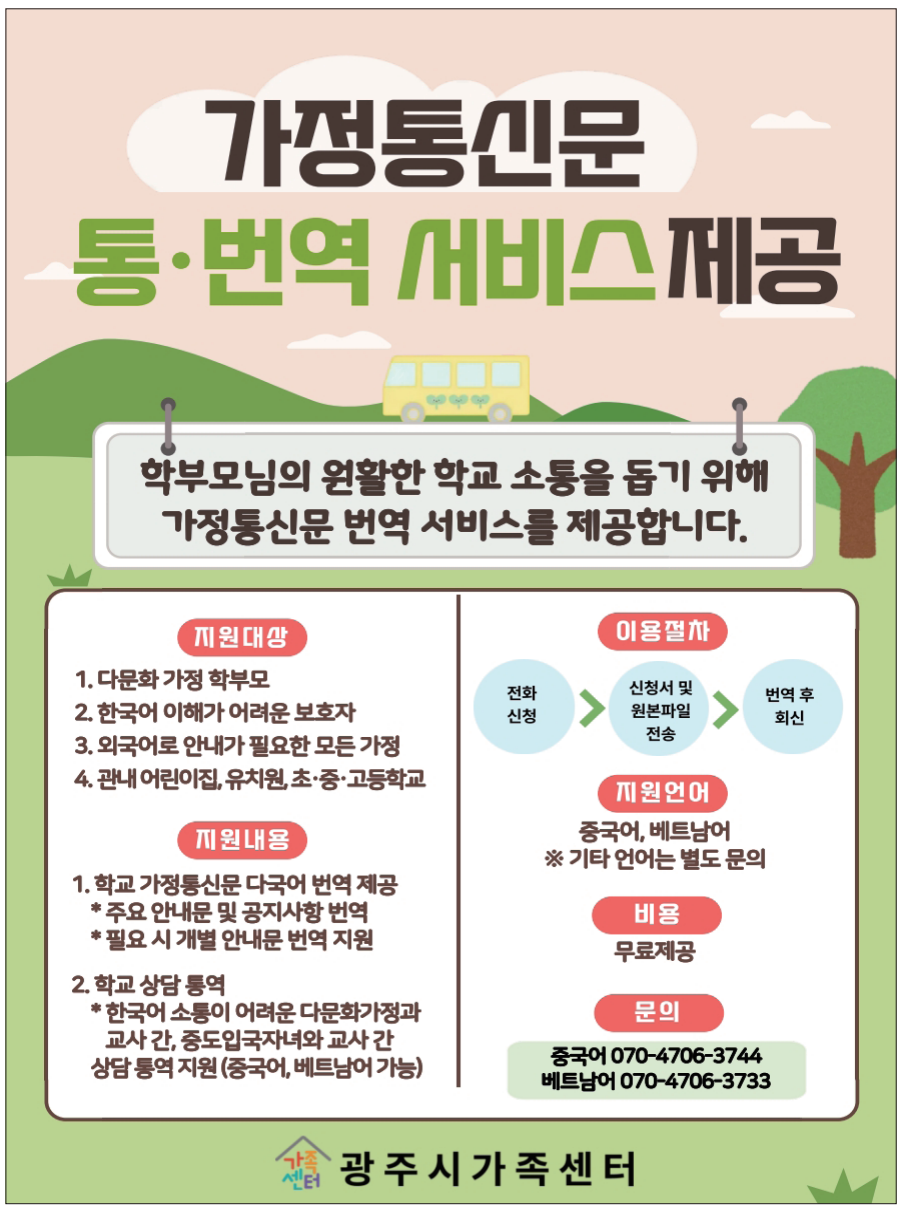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해 취업·소득·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최대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번 3분기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2001년 7월 2일~2002년 7월 1일 출생자)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정보망 '잡아바'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진행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소 변동 이력이 전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연계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추가 첨부해야 하며,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신청된다. 다만, 2026년 3분기 신규 신청자부터는 자동 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매 분기 직접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뒤 오는 10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광주사랑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미용봉사 참여해 현장 경험 쌓고 어르신과 정서적 교류'

양평군가족센터, 결혼이민자 미용자격증반 수료생 미용 봉사활동 진행

양평군가족센터(센터장 박우영)는 지난 8월 12일 단월면 행복한경희요양원에서 미용자격증 교육을 수료한 결혼이민자들과 함께 어르신 대상 미용 커트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미용자격증반 수료 이후 진행된 두 번째 봉사활동으로, 참여자들이 교육과 실습을 통해 익힌 미용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여 봉사 경험과 현장 대응 역량을 쌓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양평군미용협회 소속 전문 미용 원장들이 요양원 어르신 15명을 대상으로 커트 봉사를 진행했으며, 다문화가족 참가자들은 머리카락 정리와 가운 착용, 휠체어 이동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어르신의 모발 상태와 희망 스타일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시술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며 고객 응대와 상황별 대응 방법을 배웠다.

특히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미용 기술을 익히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기술'까지 배울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말벗이 되어드리며 미용서비스에 더해 정서적 교류를 이어갔다. 어르신들도 깔끔하게 정돈된 헤어 스타일에 만족감을 표현하고 참여자들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편, 참여자들은 미용사(일반) 실기시험 하반기 대비를 위해 정규 교육이 종료된 이후에도 자발적인 실습 모임을 구성해 꾸준히 연습하고 있다. 센터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에서 한발 더 나아가 봉사활동과 현장 경험을 연계함으로써 결혼이민자들이 전문성을 높이고 향후 취창업과 지역사회 참여로 역량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박우영 센터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교육생들이 배운 미용 역량을 지역사회와 나누고, 어르신들과 따뜻하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키우고, 사회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현장 체험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양평군 2026년 자동차 무료점검 서비스 실시

양평군은 오는 9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내 주소를 둔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6년 자동차 무료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양평군지회가 주관하고 양평군이 지원하며 조합 소속 정비사들이 참여한다.

점검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양평군 물맑은종합운동장 주차장과 용문면사무소 주차장에서 진행된다.

점검 서비스는 엔진오일 냉각수, 브레이크 상태, 타이어 공기압, 전조등 및 배터리 등의 기초 진단과 와이퍼, 브레이크 오일 등 소모품 점검 및 무상 교체가 포함된다. 단, 외제차와 1톤 트럭 이상 차량은 제외된다.

오경진 교통과장은 "이번 무료점검을 통해 군민들이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보다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안전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료점검 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양평군지회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양평군가족센터, 다문화자녀 사회성발달 프로그램 「PLAY 펜싱」 운영 성료



양평군가족센터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21일까지 총 8회기에 걸쳐 다문화자녀 성장지원사업 사회성발달 프로그램 「PLAY 펜싱」을 진행했다.

다문화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또래 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자녀들이 펜싱이라는 새로운 스포츠에 도전하며 자신감과 자기조절력을 높이고, 또래와 함께 규칙을 지키고 협력하는 경험을 통해 사회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단순한 체육활동을 넘어 스포츠 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배려하며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프로그램은 펜싱 기본자세와 스텝을 시작으로 공격·방어 및 반격 기술, 미니 펜싱경기, 팀워크 챌린지, 실전 경기 등 참여자들의 수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아동들은 회기가 거듭될수록 새로운 기술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서로의 경기를 응원하는 등 한층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마지막 8회기에는 그동안 익힌 기술을 활용한 펜싱경기 개인전과 단체전, 시상식을 진행했다. 승패에만 집중하기보다 경기 규칙을 존중하고 상대를 배려하며 서로의 도전을 격려하는 스포츠맨십을 경험하면서 여름방학 동안의 펜싱 활동을 뜻깊게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양평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양평종합체육센터를 활용하고 펜싱 장비와 전문강사 등 안정적인 프로그램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지역의 체육 인프라와 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 지원 전문성을 연계해 다문화자녀들에게 평소 접하기 어려운 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박우영 센터장은 "처음에는 펜싱이 낯설어 조심스럽던 아이들이 회기가 진행될수록 먼저 친구에게 다가가고, 서로 응원하며 한 팀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앞으로도 다문화자녀들이 다양한 경험 속에서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또래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성발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이지은 기자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지난 8월 22일 센터 2층 대회의실과 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서 '2026년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언어발달지원사업, 이중언어 교육지원사업, 방문교육사업 등 2026년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에 참여 중인 42가정 143명이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은 평일이 아닌 주말을 활용한 원데이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맞벌이 가정도 부담 없이 참여하며 가정 내 정서적 유대감을 다질 수 있도록 했다.

부모-자녀 상호작용 교육과 놀이 중심 체험 활동을 결합해 오전에는 안전수칙 교육과 함께 부모-자녀 상호작용 교육이 진행됐으며, 이후 롯데월드 어드벤처로 이동해 자유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놀이공원 내 역동적인 상호작용과 감정 공유 경험은 미취학·초등 저학년 다문화 아동의 언어·정서 발달을 자연스럽게 촉진했으며, 또래 다문화가족 간 네트워크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한 다문화가족 부모는 "평소 일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아이와 온전히 시간을 보내기 어려웠는데, 하루 동안 아이와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며 "다른 다문화가족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대화한 것도 즐거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하남시가족센터는 프로그램 종료 후 참가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참여자 피드백과 인터뷰를 통해 부모-자녀 간 긍정적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실천 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대규모로 진행된 프로그램인 만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했다. 아동 실종·미아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교육과 보호자 인솔 동선 점검은 물론, 비상약품이 구비된 휴대용 응급키트를 각 가정에 배부하고 행사 전 과정에 안전관리 담당 인력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하남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정이 겪는 놀이 문화 기회의 소외와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족 내 긍정적인 상호작용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고 본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또래와 함께하는 놀이 활동으로 협동심·자신감 키워



하남시가족센터는 지난 8월 4일부터 7일까지 하남시가족어울림센터 2층 대강당에서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1~2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진로설계지원 사업의 일환인 정서집단 체육활동 프로그램 '탄탄(TAN-TAN) 챌린지'를 운영했다. '탄탄(TAN-TAN) 챌린지'는 저학년 다문화 아동이 또래와 함께 다양한 놀이 활동에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협동심과 집중력, 자신감을 기를 수 있도록 한 집단체험 프로그램이다. 아동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 놀이와 체험 중심의 집단 활동으로 구성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아동들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규칙을 지키며 놀이에 참여하고, 서로 협력해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했다. 또한 집중력과 자기조절력을 기르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과제에 끝까지 도전하는 경험을 쌓았다.

특히 경쟁보다는 친구와 함께 도전하고 성공의 기쁨을 나누는 과정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한편,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즐기며 자연스럽게 정서지능을 함양하고 또래 관계에 필요한 배려와 협력의 의미를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참여 아동들은 놀이와 체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경험했으며, 그 과정에서 서로 응원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남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저학년 아동에게는 설명이나 교육 중심의 활동보다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성공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건강한 또래관계를 형성하며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이지은 기자

하남 1인가구 건강 돌봄 프로그램 운영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1인가구 청년의 신체·정서적 건강 증진과 건강한 자기관리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1인가구지원사업 「건강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청년층 건강돌봄 프로그램은 8월부터 9월까지 총 9회기에 걸쳐 청년 1인가구 1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청년층의 생애주기와 특성을 고려하여 자신의 성향을 이해하는 자기이해 활동부터 신체활동, 이미지메이킹까지 다양한 주제로 구성하여 참여자들이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돌보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1회기 에니어그램 검사를 통한 자기이해 및 자기인식 강화 ▲2~4회기 클라이밍을 통한 기초 동작, 지구력 및 볼더링 활동 ▲5~8회기 러닝을 통한 바르게 걷기 및 달리기 방법 습득 ▲9회기 퍼스널컬러를 활용한 이미지메이킹 등 총 9회기로 운영된다.

현재 에니어그램 프로그램을 마치고 클라이밍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참여자들은 다양한 신체활동을 경험하며 자신의 체력과 운동능력을 확인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운동 프로그램을 넘어 자기이해와 신체활동을 연계한 통합형 건강돌봄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에니어그램을 통해 자신의 성향과 행동 특성을 이해하고, 클라이밍과 러닝을 통해 신체를 움직이며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참여자 간 함께 활동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사회 내 사회적 관계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031-793-2993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족도 참여할 수 있는 경기도의 복지 문화 프로그램

경기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추가 모집 및 온 가족 독도 캠프 참가자 모집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추가 모집

경기도가 8월 26일부터 9월 8일까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임신부와 출산 산모의 친환경농산물 구매 부담을 덜고 건강한 먹거리 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동물복지 인증품, 무항생제 축산물 등 친환경 인증 식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선택해 배송받을 수 있다.

모집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인 여성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신청가능한 25개 시군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다. 나머지 6개 시군은 지난 신청기간에 지원 인원이 충족돼 이번 추가 모집 대상에서 제외됐다.

추가 모집 인원은 약 7,500여 명이며, 시군별 모집 규모에 따라 추첨 또는 선착순 등의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 가능한 시군은 수원·용인·고양·화성·성남·남양주·평택·안양·파주·김포·의정부·광주·하남·광명·오산·이천·안성·포천·의왕·양평·여주·동두천·과천·가평·연천 등 25개 시군이다.

선정된 임산부는 자부담 20%를 포함해 1인당 총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에코이몰(ecoemall.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 가족 독도 캠프 참가자 모집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고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하는 독도캠프' 5~7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30일 오후 1시부터 신청 가능하며, 총 150가족 선착순 모집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마술 공연과 함께 독도를 배우는 '독도 이야기', 대형 퍼즐과 놀이활동으로 진행하는 '독도 운동회', 팝페라 공연으로 꾸며지는 '독도 축제', 브레이크댄스와 독도 댄스교실을 결합한 '독도 퍼포먼스' 등이다. 프로그램과 숙박, 식사는 무료로 제공된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운영되며, 5차 캠프는 10월 2~3일, 6차는 10월 23~24일, 7차는 11월 20~21일에 열린다.

차수별로 ▲1~4인 가구 23가족 ▲5~6인 가구 12가족 ▲배려대상가구 15가족 등 50가족을 모집하며, 총 150가족, 약 520명이 참여한다. 배려대상가구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정, 다문화가족, 장애인가족, 한부모가족 등이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족은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누리집(gfgf.kr) 공지사항 내 전용 네이버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중국어 29면, 태국어 하단〉

파파야스토리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เปิดรับสมัครเพิ่มเติมสำหรับโครงการผลิตผลทางการเกษตรที่เป็นมิตรต่อสิ่งแวดล้อมสำหรับหญิงตั้งครรภ์ และเปิดรับสมัคร ผู้เข้าร่วมค่ายดกโดสำหรับทั้งครอบครัว

เปิดรับสมัครเพิ่มเติมสำหรับโครงการผลิตผลทางการเกษตรที่เป็นมิตรต่อสิ่งแวดล้อมสำหรับหญิงตั้งครรภ์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จะเปิดรับสมัครเพิ่มเติมสำหรับผู้มีสิทธิ์เข้าร่วมโครงการ "สนับสนุนผลิตผลทางการเกษตรที่เป็นมิตรต่อสิ่งแวดล้อมสำหรับ หญิงตั้งครรภ์" ตั้งแต่วันที่ 26 สิงหาคม ถึงวันที่ 8 กันยายน โครงการสนับสนุนผลิตผลทางการเกษตรที่เป็นมิตรต่อสิ่งแวดล้อมสำหรับ หญิงตั้งครรภ์เป็นโครงการที่ช่วยลดภาระค่าใช้จ่ายในการซื้อผลิตผลทางการเกษตรที่เป็นมิตรต่อสิ่งแวดล้อมสำหรับหญิงตั้งครรภ์และมารดาหลังคลอด พร้อมสนับสนุนการบริโภคอาหารที่ดีต่อสุขภาพ ผู้ที่มีสิทธิ์เข้าร่วมโครงการสามารถเลือกซื้ออาหารที่ได้รับการรับรองว่าเป็นมิตร ต่อสิ่งแวดล้อม เช่น ผลิตผลทางการเกษตรอินทรีย์, ผลิตผลทางการเกษตรที่ไม่ใช้สารเคมี, อาหารแปรรูปอินทรีย์, ผลิตภัณฑ์ที่ได้รับการรับรอง ด้านสวัสดิภาพสัตว์, และผลิตภัณฑ์ปศุสัตว์ที่ไม่ใช้ยาปฏิชีวนะ ได้โดยตรงผ่านร้านค้าออนไลน์ และรับสินค้าถึงบ้าน

ผู้ที่มีสิทธิ์สมัคร ได้แก่ มารดาที่คลอดบุตรตั้งแต่วันที่ 1 มกราคม 2025 เป็นต้นมา และหญิงที่กำลังตั้งครรภ์ ณ วันที่ยื่นสมัคร โดยต้องเป็น หญิงตั้งครรภ์ที่มีที่อยู่ตามทะเบียนบ้านอยู่ใน 25 จากทั้งหมด 31 เมืองและอำเภอของ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ที่เปิดรับสมัคร ส่วนอีก 6 เมืองและอำเภอ ไม่รวมอยู่ในการรับสมัครเพิ่มเติมครั้งนี้ เนื่องจากจำนวนผู้ได้รับสิทธิ์ครบตามจำนวนที่กำหนดแล้วในช่วงการรับสมัครครั้งก่อน

จำนวนผู้ที่จะเปิดรับสมัครเพิ่มเติมมีประมาณ 7,500 คน โดยจะคัดเลือกผู้มีสิทธิ์เข้าร่วมโครงการด้วยวิธีการจับสลากหรือมาก่อนได้ก่อน ขึ้นอยู่กับจำนวนที่เปิดรับสมัครของแต่ละเมืองและอำเภอ เมืองและอำเภอที่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ได้มีทั้งหมด 25 แห่ง ได้แก่ ซูวอน, ยงอิน, โกยาง, ฮวาซอง, ซองนัม, นัมยางจู, พยองแทก, อันยาง, พาจู, คิมโพ, อียจองบู, ควางจู, ฮานัม, ควางมยอง, โอซาน, อีชอน, อันซอง, โพชอน, อียวัง, ยางพยอง, ยอจู, ทงดูชอน, ควาชอน, คาพยอง, และยอนชอน

หญิงตั้งครรภ์ที่ได้รับการคัดเลือกจะได้รับผลิตผลทางการเกษตรที่เป็นมิตรต่อสิ่งแวดล้อมมูลค่ารวม 240,000 วอนต่อคน โดยผู้ได้รับสิทธิ์ จะต้องรับผิดชอบค่าใช้จ่ายเอง 20% หญิงตั้งครรภ์ที่ประสงค์จะสมัคร 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ทางออนไลน์ผ่านเอโคอีมอล (ecoemall.com) หรือเดินทางไปสมัครด้วยตนเองที่ศูนย์บริการชุมชน (จูมินเซ็นเตอร์) ในเขตพื้นที่ที่ตนมีที่อยู่ โดยนำเอกสารหลักฐาน เช่น ใบรับรองการเกิด, หรือใบรับรองการตั้งครรภ์ ไปยื่นประกอบการสมัคร

เปิดรับสมัครผู้เข้าร่วม "ค่ายดกโดสำหรับทั้งครอบครัว"

มูลนิธิคนรุ่นอนาคตแห่ง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เปิดรับสมัครผู้เข้าร่วม "ค่ายดกโดร่วมกับครอบครัว" ครั้งที่ 5~7 เพื่อส่งเสริมความเข้าใจที่ถูกต้อง เกี่ยวกับดกโด และเสริมสร้างการสื่อสารและความผูกพันระหว่างสมาชิกในครอบครัว 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ได้ตั้งแต่เวลา 13:00 น. ของวันที่ 30 โดยจะรับสมัครทั้งหมด 150 ครอบครัว ตามลำดับก่อนหลัง

โปรแกรมหลักประกอบด้วย "เรื่องราวของดกโด" ซึ่งเรียนรู้เกี่ยวกับดกโดควบคู่ไปกับการแสดงมายากล, "กีฬาสีดกโด" ที่จัดกิจกรรมผ่าน จิ๊กซอว์ขนาดใหญ่ และเกมต่างๆ, "เทศกาลดกโด" ที่จัดขึ้นในรูปแบบการแสดงป๊อปโอเปรา และ "การแสดงดกโด" ที่ผสมผสานการเต้น เบรกแดนซ์กับคลาสสอนเต้นดกโด เป็นต้น โปรแกรม, ที่พัก, และอาหาร ให้บริการฟรี

ค่ายจัดขึ้นเป็นระยะเวลา 2 วัน 1 คืน ณ ศูนย์ฝึกอบรมเยาวชน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โดยค่ายครั้งที่ 5 จะจัดขึ้นในวันที่ 2~3 ตุลาคม ครั้งที่ 6 วันที่ 23~24 ตุลาคม และครั้งที่ 7 วันที่ 20~21 พฤศจิกายน

ในแต่ละครั้งจะเปิดรับสมัครทั้งหมด 50 ครอบครัว แบ่งเป็น ▲ครอบครัวที่มีสมาชิก 1~4 คน จำนวน 23 ครอบครัว ▲ครอบครัวที่มีสมาชิก 5~6 คน จำนวน 12 ครอบครัว และ ▲ครอบครัวที่อยู่ในกลุ่มที่ต้องได้รับการดูแลเป็นพิเศษ จำนวน 15 ครอบครัว โดยทั้ง 3 ครั้งจะมีผู้เข้าร่วม ทั้งหมด...〈중략, 한글 기사 상단〉



'다(多)가치 하나 되는 우리 가족, 마음 잇기'

광명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사업 이주배경가족 캠프 진행

광명시가족센터(센터장 남은정)는 지난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간 '이천시 자연나라'에서 이주배경가족 41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족 캠프를 진행했다.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교육청과 협업해 진행된 이번 캠프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가족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 간 유대감을 증진하고 정서적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사업'은 ▲부모·자녀 관계향상 ▲미래설계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며,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사회성·리더쉽 개발을 위한 활동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자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이주배경 캠프는 ▲관계형성프로그램(초성게임,목공체험,튜브썰매,물놀이,샌드아트) ▲가족 간 화합 프로그램(레크리에이션,가족 명랑 운동회) 등 가족 협동을 통한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남은정 센터장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지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이주배경가족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웃고 소통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가족센터는 다문화 자녀를 위한 이중언어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지원, 기초학습지원,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적응지원, 방문교육, 언어발달서비스를 비롯해 다문화가족 태권도교실,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한국어교육, 통번역서비스 등 다문화가족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해외여행 전 홍역 예방접종력 확인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미국 등 세계적으로 홍역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광명시는 이에 따라 홍역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해외여행 전 예방접종력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 '전 세계 감염병 발생 동향' 제30호에 따르면, 지난 7월 18일까지 미주 지역 16개국·1개 준주(주로 승격되지 않은 자치 지역)에서 홍역 확진자 4만 7천459명이 보고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주 지역의 장기화된 홍역 유행이 그동안의 홍역 퇴치 성과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높은 예방접종률을 유지하고 예방접종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명시는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시민 중 접종력이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 의료기관과 상담해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특히 해외여행 후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과 함께 발진 등 증상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의료기관 방문 전에는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진료받아야 한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감염병의 감시와 시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Chính thức vận hành hệ thống ứng phó nhanh với các vụ xâm phạm quyền con người của lao động nước ngoài và đồng bào ở nước ngoài

Một xã hội tôn trọng quyền con người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cũng là một xã hội trong đó quyền con người của người dân Hàn Quốc được bảo vệ một cách toàn diện và vững chắc. Đây chính là nền tảng để xây dựng một cộng đồng nơi mọi người đều có thể sống an toàn và được tôn trọng phẩm giá.

Bộ Tư pháp (Bộ trưởng Jeong Seong-ho) đã tổ chức lễ ra mắt "Đoàn điều tra về xâm phạm quyền con người của người nhập cư" tại Trụ sở Chính phủ Gwacheon vào ngày 31/7 vừa qua, qua đó chính thức công bố việc triển khai hệ thống bảo vệ tích hợp trên toàn quốc, nhằm nhanh chóng điều tra các vụ xâm phạm quyền con người đối với người nhập cư, bao gồm lao động nước ngoài và đồng bào ở nước ngoài, đồng thời hỗ trợ bảo vệ và khôi phục quyền lợi cho họ.

Đoàn điều tra được thành lập lần này là một hệ thống bảo vệ tích hợp, bao gồm toàn bộ quy trình từ tiếp nhận khai báo, điều tra tại hiện trường đến hỗ trợ bảo vệ và khôi phục quyền lợi cho nạn nhân. Hệ thống sẽ được vận hành dưới hình thức mạng lưới trên toàn quốc, kết nối Cục Chính sách Xuất nhập cảnh và Người nước ngoài với các Cơ quan (Văn phòng) Xuất nhập cảnh và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các địa phương.

Đội "Nhân quyền và Quyền lợi của người nhập cư" thuộc Cục Chính sách Xuất nhập cảnh và Người nước ngoài, Bộ Tư pháp sẽ chịu trách nhiệm điều hành tổng thể Đoàn điều tra. Đoàn điều tra gồm 100 cán bộ chuyên trách điều tra các vụ xâm phạm quyền con người của người nhập cư, được bố trí tại 43 cơ quan (văn phòng, chi nhánh) Xuất nhập cảnh và Người nước ngoài trên toàn quốc.

Đoàn điều tra sẽ thực hiện các nhiệm vụ như: ▲phòng ngừa và tuyên truyền về các hành vi xâm phạm quyền con người của người nhập cư ▲kiểm tra thực trạng tại nơi làm việc ▲phòng ngừa và điều tra các hoạt động của môi giới bất hợp pháp ▲tiến hành điều tra tại hiện trường ▲hỗ trợ bảo vệ và khôi phục quyền lợi cho nạn nhân.

Đặc biệt, khi tiếp nhận khai báo về hành vi xâm phạm quyền con người, Đoàn điều tra sẽ nhanh chóng tiến hành xử lý tại hiện trường để xác minh nội dung và mức độ thiệt hại, đồng thời phối hợp với các cơ quan liên quan để hỗ trợ khôi phục quyền lợi cho nạn nhân.

Bên cạnh đó, trước nguy cơ mắc các bệnh do nắng nóng ở lao động nước ngoài trong lĩnh vực nông nghiệp và thủy sản ngày càng gia tăng do tình trạng nắng nóng kéo dài gần đây, Đoàn điều tra dự kiến sẽ trực tiếp đến các nơi làm việc sử dụng lao động thời vụ để kiểm tra tập trung tình hình ứng phó với nắng nóng, đồng thời tích cực triển khai các hoạt động phòng ngừa và hướng dẫn cho chủ sử dụng lao động cũng như lao động thời vụ.

Cục Chính sách Xuất nhập cảnh và Người nước ngoài thuộc Bộ Tư pháp đã thiết lập và đưa vào vận hành số điện thoại chuyên tiếp nhận khai báo về các vụ xâm phạm quyền con người (phím số 1) tại Trung tâm Thông tin Tổng hợp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1345) kể từ ngày 27/5 năm nay. Đồng thời, nhằm hỗ trợ những trường hợp gặp khó khăn khi khai báo qua điện thoại do chưa đăng ký số điện thoại tại Hàn Quốc, hệ thống tiếp nhận khai báo về thiệt hại thông qua mạng xã hội (SNS) cũng đã được thiết lập. Với việc Đoàn điều tra chính thức đi vào hoạt động lần này, các khâu từ tiếp nhận khai báo, điều tra tại hiện trường đến hỗ trợ bảo vệ và khôi phục quyền lợi sẽ được liên kết thành một hệ thống thống nhất, qua đó kỳ vọng công tác bảo vệ quyền con người sẽ trở nên hiệu quả và thiết thực hơn.

Tại lễ ra mắt diễn ra cùng ngày, 100 cán bộ chuyên trách điều tra các vụ xâm phạm quyền con người của người nhập cư thuộc các Cơ quan (Văn phòng, Chi nhánh) Xuất nhập cảnh và Người nước ngoài trên toàn quốc đã cùng đọc Tuyên ngôn bảo vệ quyền con người, đồng thời cam kết tôn trọng quyền con người của người nhập cư, lấy nạn nhân làm trung tâm trong quá trình điều tra và nỗ lực hết sức để bảo vệ, khôi phục quyền lợi cho nạn nhân.〈중략〉파파야스토리

QR코드 스캔 후 파파야스토리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국기를 선택해 언어를 변경하세요.

法务部成立"移民人权侵害调查团"……从受理举报到权利救济的一站式支援

一个尊重外国人人权的社会，也是更加充分保障韩国国民人权的社会。这是所有人都能够安全、有尊严地生活的共同体基础。

法务部 部长郑成镐）于7月31日在政府果川厅举行了"移民人权侵害调查团"成立仪式，并宣布正式启动全国性综合保护体系，迅速调查针对外国劳工、同胞等移民的人权侵害情况，并提供权利救济支援。

此次成立的调查团是一个从受理举报到现场调查、再到受害者权利救济的综合保护体系，并联合出入境•外国人政策本部以及各地方出入境•外国人厅（事务所），以全国网络化形式运行。

调查团由法务部出入境•外国人政策本部的"移民人权•权益组"负责统筹运营，由全国43个出入境•外国人事务厅（办事处、出张所）的100名"移民者人权侵害调查专员"组成。 调查团将承担以下职责：▲预防和宣传移民人权侵害 ▲检查工作场所实际情况 ▲预防和调查非法中介 ▲现场调查 ▲受害者权利救济支援等。 特别是在接到侵犯人权举报时，将通过迅速的现场应对，调查受害事实，并与相关机构合作，帮助受害者恢复权利。

此外，鉴于近期持续高温天气导致农渔业外籍劳工中暑风险上升，调查组将直接走访检查劳务用工单位，对其高温天气应对情况进行重点检查，同时积极向雇主和季节性劳动者开展预防宣传和指导。

法务部出入境•外国人政策本部自今年5月27日起，在外国人综合咨询中心（1345）新设并运营了专门受理人权侵害举报的专线号码（1号），考虑在韩国未开通电话号码、难以通过电话举报的情况，同时建立了通过SNS受理受害举报的体系。随着此次调查团的成立，举报受理、现场调查和权利救济将通过一个统一整合的体系相互联动，预计将能够实现更具实效性的人权保护。

在当天的启动仪式上，全国出入境•外国人事务厅（事务所、办事处 ）的100名移民人权侵害调查专员共同宣读了人权保护宣言，并承诺将尊重移民的人权，尽最大努力开展以受害者为中心的调查和权利救济工作。

法务部长官郑成镐在致辞中表示："'移民人权侵害调查团'的成立并非仅仅是新设一个组织，而是我们社会更加切实保护移民人权、提升我国国民人权水平意志的体现。"他还表示："希望通过从受理举报、现场调查到权利救济无缝衔接的保护体系，让受害者能够获得充分帮助，期待调查团在其中发挥核心且负责任的作用。"

파파야스토리

다양한 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광명시 가족센터 가 함께 합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





서비스내용

광명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외국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통·번역 서비스**를 무료 지원 합니다.

지원분야

✔개인 및 가족 간 의사소통 통역 지원

✔병원, 은행, 경찰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공공기관 이용 시 동행 통역 지원 (공증 제외)

✔유치원·학교 가정통신문 등 교육 관련 통·번역 지원

✔다문화가족, 외국인가족 정보 제공

◎중국어 외 기타 언어번역 요청시 타 센터 번역의뢰 가능 (1주일 소요 예정)

이용방법

■ 지원 언어 : 중국어

■ 대상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재외동포 및 광명시 유관기관

■ 이용방법 : 전화 또는 내방신청
(유관기관의 경우 공문발송)
사전 예약(전화접수)는 필수입니다

■ 이용시간: 연중 월~금요일(9:00~17:00)

■문 의 : ☎02-6265-1366
(직통 : 070-4725-2719 담당자 이화)

광명시가족센터는 중국어 통·번역사가 상주 근무하고 있어 중국어 통·번역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센터 광명시가족센터

성평등가족부

온가족 보듬사업



온가족보듬

온가족보듬사업은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의 복합적인 문제해결과 가족기능 회복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취약 · 긴급 위기 가족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 지원이 필요한 모든 가족)

구분 / 서비스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학습정서지원	미취학 아동 초중 재학생 자녀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1:1 자기주도 학습지도 정서지도 등	보듬매니저 가정방문 주 1회, 2시간 서비스 제공
생활도움지원	만 18세 미만 (손)자녀 만 65세 이상 노부모와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가족	긴급 일시돌봄, 활동지원 등 전반적인 생활도움 지원	
긴급위기지원	재난, 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 사건에 직면한 가족	심리정서 지도 긴급돌봄지원 전문상담 연계 등	위기 상황에 따른 맞춤지원
가족상담	개인, 부부, 부부-자녀 등	다양한 갈등 상황을 경험중인 가족에게 건강한 관계 개선 및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지원	상담전문인력 상담서비스 제공
교육문화프로그램	가족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쌓는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자조모임	비슷한 경험의 구성원과 정보 나누며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는 모임		

☎ 상담문의 : 02-2686-0435 온가족보듬사업 담당자

가족의 일상 회복, 여기서 시작

가족센터 광명시가족센터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문화누리

2026 문화누리 카드



문화누리
0000-2034-5678-0000

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활동 지원카드

발급기간 2026년 2월 2일(월) ~ 2026년 11월 30일(월)
※ 주민센터·온라인 발급기간 동일(2026년 11월 30일(월)18시까지)
※ 주민등록주소지(시·군·구 기준) 예산 소진 시 발급 조기 마감

지원대상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20.12.31.이전 출생자)

지원내용 국내 문화예술, 관광, 체육활동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금액 1인당 연간 15만 원 + 생애주기별 1만 원 추가 지원
※ 추가지원 대상 : 청소년기 2008년생~2013년생, 준고령기 1962년생~1966년생
※ 추가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발급방법 주민센터 방문, 누리집(www.mnuri.kr), 모바일 앱
카드 소지자는 전화ARS(☎1544-3412) 재충전 가능

이용기간 발급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목)까지

문 의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복권위원회

제18회

광명농악대축제

첫째날 9월 12일 (토) 전국국악경연대회

둘째날 9월 13일 (일) 농악대축제

제18회 광명전국학생 국악경연대회

일시 : 2026년 9월 12일(토) 09:30~18:00
장소 : 광명전통무형유산전수관
주최/주관 : 경기도 무형유산 광명농악보존회
후원 : 광명시, 광명시의회,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사단법인 대한민국농악연합회

제2회 평화통일기원 광명전국국악경연대회

일시 : 2026년 9월 12일(토) 11:00~18:00
장소 : 광명전통무형유산전수관
주최/주관 : 경기도 무형유산 광명농악보존회
후원 : 광명시, 광명시의회, 사단법인 대한민국농악연합회, 사단법인 국악진흥회 광명지부

도시두레놀이

일시 : 2026년 9월 13일(일) 11:50~17:00
장소 : 광명동굴 빛의광장
주최/주관 : 경기도 무형유산 광명농악보존회
후원 : 광명시, 광명시의회, 사단법인 대한민국농악연합회, 사단법인 국악진흥회 광명지부

특별공연 | 길놀이 | 창작공연
신명 예술의 혼 | 초청공연
홍쟁이들의 놀이마당
광명농악시연





가족 인권 존중 위한 '인권 인형극' 진행

광명시가족센터,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지역주민 대상 운영

광명시가족센터(센터장 남은정)는 지난 8월 6일 새로운 보금자리(광명시 도덕공원로 52, 철산4동 생활문화복합센터)로 이전한 뒤 첫 지역행사로 22일 센터 4층 교육장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인권인형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광명시 지역주민 1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 마음과 새 뜻으로 지역사회에 다가가는 광명시가족센터의 비전을 공유하고, 주민들 간에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 친화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인형극은 다소 무겁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인권의 개념을 친근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풀어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지역주민들이 함께 관람하며 일상 속에서 인권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다.

광명시가족센터는 그동안 다문화가족, 1인가구, 한부모가정 등 광명시민의 다양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번 새 센터 이전과 함께 한층 더 쾌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가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은정 센터장은 "새로운 곳에서 지역주민들과 가장 먼저 나누고 싶었던 가치는 바로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라며, "앞으로도 광명시가족센터는 지역주민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인권이 존중받고 소외되는 이 없는 행복한 광명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광명시가족센터는 이번 기념 인형극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도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다채로운 가족 지원 프로그램과 문화 행사를 지속해서 선보일 예정이다.

광명시가족센터는 다문화·한부모·일반가정·상담사업 등 가족 전체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02-6265-1366

이지은 기자

23회 평생학습축제 참가자 모집

'배움과 쉼, 사람과 사람을 잇다'

광명시가 시민과 함께 제23회 평생학습축제를 배움과 쉼이 어우러지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축제로 준비한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9월 3일까지 '2026년 제23회 광명시 평생학습축제'에 참여할 기관, 단체, 동아리 등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 축제는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광명시 평생학습원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올해로 23회를 맞이하는 광명시 평생학습축제는 학습 성과를 나누고 평생학습 가치를 함께 경험하는 소통과 참여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올해는 '배움과 쉼이 함께하는 체류형 축제'에 중점을 두고 체험·홍보부스, 동아리 공연·전시, 야외도서관, 오픈시네마, 피크닉존 등을 운영한다.

축제 공간도 평생학습원에서 철망산로까지 넓힌다. 10월 18일 철망산로 전 구간을 통제해 거리축제장으로 운영하고, 문화예술공연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마련한다. 또한, 광명문화원 '42번가의 기적'과 연계해 평생학습원과 철망산로를 하나의 축제 공간으로 연결한다. 모집 분야는 ▲정책형 체험부스 15개 ▲일반형 체험부스 20개 ▲학습동아리 공연 40팀으로, 축제 주제와 부합도, 창의성, 운영 역량 등을 종합해 선정한다. 참가는 광명시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광명이(e)지(LLL.gm.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평생학습원 2층 민주시민교육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02-2680-6200

이지은 기자

'책이 좋아서(書)' 이주민도 도서관이 즐거워지는 9월 광명 독서의 달 프로그램 참여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독서의 달'(9월)을 맞아 다채로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책이 좋아서(書)'를 주제로 시민들이 책을 보다 친근하고 흥미롭게 접하도록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행사는 오는 9월 5일 오전 10시 연서도서관 강당에서 역사학자 심용환과 함께하는 '이야기 한국사'로 시작한다. 작가의 책을 읽으며 조선왕조에 대한 숨겨진 역사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어 9월 6일 오후 1시30분 광명 아브뉴프랑 1층 라운지에서는 '서율밴드'의 어쿠스틱 그림책 공연이 펼쳐진다. 개방된 공간에서 음악과 그림책을 결합한 공연을 선보이며 관객과 소통하는 시간으로 꾸민다.

또한, 올해는 시민들의 독서 경험을 넓히기 위한 '내 인생의 한문장' 독서 이벤트도 새롭게 선보인다. 광명시도서관 도서를 읽고 가장 인상적인 한 문장을 제출하면 5천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다. 9월 1일 오전 10시부터 광명시도서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광명시 6개 공공도서관도 각기 다른 매력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하안도서관은 체험형 행사인 '구석구석 하안도서관 체험 챌린지' 및 다양한 전시를 준비했다. 광명도서관은 마술쇼 '마법 선물상자', 아트갤러리 전시 '필로그램 10회 정기전' 등을 진행한다. 소하도서관은 그림책 원화전시, 북큐레이션, '책 속 인물 그리기' 체험 프로그램 및 원데이 클래스를 마련했다.

철산도서관은 선정 도서를 읽고 감상평을 인증하면 독서노트를 증정하는 '독서크루 챌린지', 열린창작공간 '시선' 전시, 인기도서 열람 전용 코너 '핫북' 등을 운영한다.

충현도서관은 함께 만드는 책 공연 '우리의 책모험' 공연을 선보인다. 연서도서관은 '우리 동네 거실 인문학 강연'과 '우리 동네 북 컬렉션' 전시를 진행한다.박승원 광명시장은 "책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그 안에서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다"며 "이번 독서의 달이 책이 주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고, '책이 좋아서' 도서관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도서관 누리집(gmlib.gm.go.kr)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각 도서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지은 기자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오대일)는 지난 8월 21일 오전 10시 센터 가온실에서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제빵마스터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결혼이민자의 직업역량을 강화하고 취업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6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총 6회기에 걸쳐 매회 9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진행됐다.

교육생들은 제빵 이론 및 실습교육과 함께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준비하며 제빵 분야의 전문기술과 자격취득 역량을 높였다.

그 결과 총 14명의 교육생이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여 전원 수료했으며, 이 중 12명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료식에서는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한 교육생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교육기간 동안의 성과를 함께 축하하며 앞으로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했다. 이천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결혼이민자들이 새로운 직업 분야에 도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결혼이민자의 취업역량 강화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가족센터는 매년 10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취업교육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취업교육 과정을 기획하고 있다. 교육생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직업교육과 자격취득 과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취업과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와 이천시가 주최하고 이천시가족센터가 주관하며, 한국관광대학교가 협력하여 운영했다. 031-631-2267

송하성 기자

마장도서관, 이주민도 참여해 2026년 하반기 시민문화교실

이천시 마장도서관은 오는 9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시민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고 일상 속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2026년 하반기 시민문화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시민문화교실은 도서관이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시민들이 배우고 생각을 나누며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평생학습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행의 발견, 나의 발견 ▲다 담은 그림책 ▲삶의 길을 찾는 에세이 ▲평일 오전의 작은 기적(출간 기획서 4주 완성)의 4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다 담은 그림책'은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운영된다. 다양한 그림책을 함께 읽고 각자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며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이다. 같은 기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삶의 길을 찾는 에세이'를 진행한다. 글쓰기를 통해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자기 이해 프로그램으로, 참여자 각자의 이야기가 담긴 에세이를 완성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11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평일 오전의 작은 기적(출간 기획서 4주 완성)'은 책 출간을 꿈꾸는 예비 작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기획 출판으로 이끄는 출간 기획서 작성 요령을 배울 수 있다.

프로그램 수강 신청은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9월 9일, 9월 16일, 10월 20일 오전 10시부터 각각 이천시 통합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통합 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하성 기자







학생승마체험 2차 참가자 모집

이천시, 호스피아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이천시가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과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을 위해 「2026년 학생승마체험 일반 2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이며, 모집 대상은 관내 학생 165명이다. 승마체험에 들어가는 총비용 32만 원 가운데 참가 학생은 9만 6천 원만 부담하면 되며, 나머지 금액은 시가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한국마사회 종합 누리집 '호스피아(www.horsepia.com)'에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호스피아 전산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선정되며, 결과는 9월 11일 신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포기자 발생에 대비해 예비 대기자도 함께 선발할 계획이다.

체험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관내 유소년 전문 승마시설 5개소(솔밭승마클럽, HK승마스쿨, 청초원승마장, 파밀리에승마장, 스티븐승마클럽)에서 총 10회에 걸쳐 강습을 받는다. 교육과정은 이론 수업을 비롯해 말과 친해지기, 말 끌기, 말 타기 등 단계별 과정으로 운영된다.

다만 단계별 강습 중 '포니 2등급' 과정은 포니 3등급(기초) 취득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학생의 인증등급을 전산 시스템에 등록한 이후에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신청 전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문의 031-6190-7387

이지은 기자



영화로 맛보는 세계 음식문화

마장면 주민자치회, 인문학 강좌 운영해



이천시 마장면 주민자치회(회장 김진섭)는 「영화로 맛보는 세계의 음식문화 도슨트」를 운영해 주민들이 영화와 음식을 매개로 세계 각국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인문학 강좌를 개최했다.

특성화 프로그램의 하나로 운영된 「영화로 맛보는 세계의 음식문화 도슨트」는 8월에는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중심으로 영화 속에 담긴 음식과 식문화, 역사와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며 참여 주민들이 보다 쉽고 흥미롭게 세계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지역 내 비씨조명 아트센터와 협업해 영화와 음식이라는 친숙한 매개체를 활용함으로써, 단순한 인문학 강좌를 넘어 각 나라의 음식에 담긴 삶과 전통, 역사적 의미를 함께 알아보는 인문학적 배움의 시간을 제공했다.

황인동 마장면장은 앞으로 9월과 10월에도 지역 카페와 협력해 주민의 일상 속에서 세계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추석 이천사랑지역화폐 혜택 확대

이천시, 충전 인센티브 배달특급 캐시백 늘려

이천시(시장 성수석)는 추석을 맞아 시민들의 소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이천사랑지역화폐 전체 가맹점에서 결제 시 10% 특별 소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천사랑지역화폐 사용자가 이천시 관내 지역화폐 모든 가맹점에서 지역화폐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본인 충전 금액에 한함)의 10%(1인당 최대 10만 원 한도)를 캐시백으로 즉시 지급하는 행사로, 지급받은 캐시백은 지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용 가능하고, 사용 기한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아울러 이천시는 「2026 이천시 경기활성화페스타」를 12월까지 운영하며, 9월에는 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 10%, 전체 가맹점 캐시백 10%, 배달특급 결제 캐시백 20%를 제공한다. 9월을 제외한 달에도 충전 인센티브 10%, 배달특급 결제 캐시백 20%는 동일하게 제공되며, 연매출 3억 원 이하 매장인 「작은가게」에서 지역화폐로 결제할 경우 10% 캐시백을 제공해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소비 부담을 덜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이번 특별 지원을 마련했다"라며 "지역화폐 이용 확대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8월 20일, 화성에 위치한 용주사에서 다문화가족 총 20명을 대상으로 '용주사 연계 나눔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이 한국의 전통문화와 사찰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한국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용주사를 방문해 사찰의 전통문화를 알아보고 컵연등 만들기, 스님과의 차담, 명상, 합장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직접 만들고 체험하는 활동을 통해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한국의 전통문화와 불교문화를 친숙하게 경험하고, 우리 문화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스님과 함께하는 차담과 명상을 통해 사찰의 생활문화와 전통문화를 경험하고, 참여자들끼리 체험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나누며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직접 경험하고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

이은미 센터장은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다양한 문화와 자원을 경험하고 안정적으로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평택시가족센터, 진로설계지원 드림로드 물리치료사 직업체험

평택시가족센터는 지난 8월 8일, 북부복지타운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총 17명을 대상으로 진로설계지원사업 드림로드(Dream Road) '물리치료사 직업체험'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을 이해하고 직업 정보를 제공하며,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물리치료사 직업 소개를 시작으로 스트레칭 교육, 전기치료 체험, 스포츠 테이핑 실습 등에 참여했다. 특히 직접 몸을 움직이며 올바른 자세와 스트레칭 방법을 배우고, 전기치료와 스포츠 테이핑에 대해 배우며 물리치료사의 주요 업무와 관련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은미 센터장은 "직업체험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을 직접 경험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자신의 적성과 관심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설계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친구들과 함께 탐구하고 직접 실험하며 과학을 즐겁게 경험해요~

평택시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1·4호점, 과학 탐구 '알쏭달쏭 과학실험실' 운영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 공동육아나눔터 1·4호점은 8월 10일부터 27일까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알쏭달쏭 과학실험실'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신한금융희망재단 '신한꿈도담터'와 '아이들과 미래재단'의 지원으로 마련됐으며, 약 20명의 아동이 참여해 다양한 과학 원리를 직접 실험하고 체험하며 과학에 대한 흥미와 탐구심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단순히 보고 듣는 방식에서 벗어나 아동이 직접 만들고 관찰하며 실험 결과를 확인하는 체험 중심의 활동으로 진행됐다. 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과학 개념을 실험과 놀이로 풀어내 과학을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험 과정에서 결과를 예측하고 확인하며 과학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참여자들은 "과학 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아이가 직접 실험까지 해보니 과학에 흥미를 가지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방학 동안 과학실험을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 흥미롭고 즐겁게 보냈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은미 센터장은 "아이들이 직접 실험하고 친구들과 함께 탐구하며 과학을 즐겁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평택시가족센터는 아동과 가족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 아동과 가족의 성장 및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아동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함께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써 지역사회의 돌봄과 교육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평택시가족센터, 지역사회 네트워크사업 '다함께돌봄센터 9호점' 후원품 전달식



평택시가족센터는 지난 8월 12일, 평택시다함께돌봄센터 9호점(센터장 이영순)으로부터 아동들이 직접 만든 양파장아찌 30개를 전달받았다.

이번에 전달된 양파장아찌는 평택시다함께돌봄센터 9호점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직접 재료를 준비하고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단순한 음식 만들기 활동을 넘어 자신들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지역사회와 나누며 나눔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동들은 양파장아찌를 만들며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완성된 음식을 지역사회와 나누며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배웠다. 특히 이번에 전달된 양파장아찌는 관내 다문화가정에 전달될 예정으로, 아동들의 정성이 지역사회 이웃에게 전해지는 뜻깊은 나눔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영순 센터장은 "아이들이 직접 만든 양파장아찌를 지역사회와 나눌 수 있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활동이 아이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되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따뜻한 마음을 담아 나눔을 실천해 준 평택시다함께돌봄센터 9호점과 참여 아동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평택시가족센터는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과 소통을 실천하며 가족과 지역사회를 잇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다양한 가족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多元文化家庭也能参与的京畿道福利文化项目 경기도의 복지 문화 프로그램 안내

孕妇有机农产品追加招募

京畿道将于8月26日至9月8日进行"孕妇有机农产品支援"对象追加招募。 孕妇有机农产品支援项目是减轻孕妇及产后产妇购买有机农产品负担、支持健康食品消费的项目。支援对象可在网上商城直接选择并配送有机农产品、无农药农产品、有机加工食品、动物福利认证产品、无抗生素畜产品等环保认证食品。

招募对象为2025年1月1日以后分娩的产妇以及申请日当前仍处于妊娠中的女性，且申请者须为京畿道内31个市郡中可申请的25个市郡所在地的孕妇。其余6个市郡在上次申请期间已满足支援人数，因此此次被排除在追加招募对象之外。

追加招募人数约为7,500余人，将根据各市郡的招募规模，通过抽签或先到先得等方式选定对象。可申请的市郡包括水原、龙仁、高阳、华城、城南、南杨州、平泽、安养、坡州、金浦、议政府、光州、河南、光明、乌山、利川、安城、抱川、义王、杨平、骊州、东豆川、果川、加平、涟川 等25个市郡。 被选中的孕妇每人可获得总价值约24万韩元的有机农产品支持，其中包括20%的自付部分。有申请意愿的孕妇可通过EcoiMall(ecoemall.com)在线申请，或携带出生证明、怀孕确认书等证明材料，前往户籍所在地的邑•面•洞居民服务中心申请。

全家人独岛营参与者招募

京畿道未来世代基金会为提高对独岛的正确认识、增进家庭成员间的沟通与纽带感，招募"与家人一起的独岛营"第5~7期的参与者。可于30日下午1点起进行申请，共招募150个家庭，先到先得。

主要节目有:边看魔术表演、了解独岛的"独岛故事"；大型拼图、进行游戏互动的"独岛运动会"；流行歌剧表演的"独岛嘉年华"，将霹雳舞与独岛舞蹈课堂相结合的"独岛表演"等。项目、住宿和餐饮均免费提供。

活动将在京畿道青少年训练院以1晚2天的形式进行，第五期营地将于10月2日至3日举行，第六期于10月23日至24日举行，第七期于11月20日至21日举行。

按批次招募50个家庭，分别为▲1~4人家庭23个▲5~6人家庭12个▲关怀对象家庭15个，总计150个家庭，约520人参与 需要关怀的对象家庭包括基础生活保障领取者家庭、多文化家庭、残障人士家庭、单亲家庭等。

希望参与的家庭请访问京畿道未来世代基金会官网(gfgf.可通过kr) 公告事项中的专用Naver表单提交申请书。〈한글 기사 21면〉

파파야스토리

부모역할지원사업 [평택부모학교]

영유아기 부모교육

With. 공동육아나눔터 4호점

대 상 만2~5세 자녀 및 부모 10가족(20명)
* 만2~3세 자녀 및 부모 5가족 / 만4~5세 자녀 및 부모 5가족 - 자녀 동반 필수!

장 소 공동육아나눔터4호점(비전3로 13 배꽃마을1단지 내)

신 청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 신청
: 홈페이지 로그인 → 프로그램 안내 → 프로그램 신청(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1회기 만2~3세(22~24년생)
with. 유은희아동발달심리치료센터 유은희 대표
(「잘 노는 아이의 잠재력」저자
前 SBS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초보맘 육아일기 자문위원 등)
9/14(월) 10:00~11:00
놀이코칭 부모교육
(플레이콘과 팝튜브로 만드는 나만의 상상친구 - 창의놀이 & 상호작용 부모교육)

2회기 만4~5세(20~22년생)
with. 유은희아동발달심리치료센터 유은희 대표
(「잘 노는 아이의 잠재력」저자
前 SBS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초보맘 육아일기 자문위원 등)
9/14(월) 11:00~12:00
놀이코칭 부모교육
(플레이콘과 팝튜브로 만드는 나만의 상상친구 - 창의놀이 & 상호작용 부모교육)

문 의 가족지원팀 031-615-3962

★ 안내사항 (꼭 읽어주세요!) ★
★ 교육일 기준 만 나이에 따라 1회기는 만 2~3세(생년월일 22년 9월 15일 ~ 24년 9월 14일), 2회기는 만 4~5세(생년월일 20년 9월 15일 ~ 22년 9월 14일 출생) 자녀가 참여할 수 있으며, 본 교육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그룹별 놀이코칭 부모교육으로, 자녀 동반이 필수입니다. 참여하는 가족구성원 (부모·자녀) 모두 신청해 주세요.
★ 참여 가능 대상자를 우선 선발하며, 부모교육 우수 참여자는 향후 진행되는 양육스트레스 해소 체험 프로그램에 우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취소기간 이후 취소하거나 교육 당일 무단 불참할 경우 다른 신청자의 참여 기회가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취소기간 내 취소 또는 사전 연락해 주세요.

평택시가족센터
4호점 1회기 신청 | 4호점 2회기 신청

부모역할지원사업 [평택부모학교]

영유아기 부모교육

With.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대 상 만2~5세 자녀 및 부모 10가족(20명)
* 만2~3세 자녀 및 부모 5가족 / 만4~5세 자녀 및 부모 5가족 - 자녀 동반 필수!

장 소 공동육아나눔터3호점(고덕갈평3로 40 커뮤니티센터-1 내)

신 청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 신청
: 홈페이지 로그인 → 프로그램 안내 → 프로그램 신청(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1회기 만2~3세(22~24년생)
with. 유은희아동발달심리치료센터 유은희 대표
(「잘 노는 아이의 잠재력」저자
前 SBS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초보맘 육아일기 자문위원 등)
9/17(목) 10:00~11:00
놀이코칭 부모교육
(플레이콘과 팝튜브로 만드는 나만의 상상친구 - 창의놀이 & 상호작용 부모교육)

2회기 만4~5세(20~22년생)
with. 유은희아동발달심리치료센터 유은희 대표
(「잘 노는 아이의 잠재력」저자
前 SBS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초보맘 육아일기 자문위원 등)
9/17(목) 11:00~12:00
놀이코칭 부모교육
(플레이콘과 팝튜브로 만드는 나만의 상상친구 - 창의놀이 & 상호작용 부모교육)

문 의 가족지원팀 031-615-3962

★ 안내사항 (꼭 읽어주세요!) ★
★ 교육일 기준 만 나이에 따라 1회기는 만 2~3세(생년월일 22년 9월 15일 ~ 24년 9월 14일), 2회기는 만 4~5세(생년월일 20년 9월 15일 ~ 22년 9월 14일 출생) 자녀가 참여할 수 있으며, 본 교육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그룹별 놀이코칭 부모교육으로, 자녀 동반이 필수입니다. 참여하는 가족구성원 (부모·자녀) 모두 신청해 주세요.
★ 참여 가능 대상자를 우선 선발하며, 부모교육 우수 참여자는 향후 진행되는 양육스트레스 해소 체험 프로그램에 우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취소기간 이후 취소하거나 교육 당일 무단 불참할 경우 다른 신청자의 참여 기회가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취소기간 내 취소 또는 사전 연락해 주세요.

평택시가족센터
3호점 1회기 신청 | 3호점 2회기 신청

2026년 아버지역할지원사업

함께 자라는 아버지 학교 + 아빠랑 플레이데이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

1회기


| 대상 | 12~19세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 14~20명
| 내용 | 함께 자라는 아버지 학교 - 청소년기 아버지 성교육
(청소년기 성 가치관과 건강한 연애,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 장소 | 평택시가족센터 108호 강의실(경기 평택시 서정로295, 북부복지타운)
| 일시 | 2026.10.03.(토) 10:00~12:00

2회기

| 대상 | 12~19세 청소년기 자녀와 아버지 28명(14가족) / 아버지 + 자녀 1명
| 내용 | 아빠랑 플레이데이 - 아빠와 함께하는 농장체험
(가을 논생태 관찰 및 벼수확 체험, 농기구 체험, 불멍 즐기기 등)
| 장소 | 로렌츠 감성치유 시골체험(경기 평택시 팽성읍 대사로 144-4)
| 일시 | 2026.10.17.(토) 10:00~12:30

안내사항

- 프로그램 신청은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전화 접수는 불가하며, 비회원은 회원가입(아버지, 자녀 모두 회원가입)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아버지와 자녀 모두 신청해주셔야 정상 접수됩니다. 자녀만 신청한 경우에는 대기 접수로 전환됩니다.
- 체험 대상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기 접수로 등록됩니다.
- 본 프로그램은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참여자가 선정됩니다.
  ① 1·2회기 프로그램 모두 참석 가능한 가족
  ② 평택시가족센터 프로그램 미참여 신규 참여 가족
- 성교육 참여만 희망하는 경우에는 아버지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장체험(체험활동)만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참여하는 것은 불가하며, 아버지 교육(성교육) 참여가 필수입니다.
- 이번 교육 및 체험은 상반기 아버지 교육 이수 여부와 관계없이 모집이 진행됨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 기관 사정에 의해 일정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프로그램 확정 시 확정 안내문자 발송 예정입니다.



평택시가족센터
문의) 가족지원팀 031-615-3965

교육+체험 신청하기

[진로설계지원사업] 드림로드(Dream Roda)

응급구조사 직업인 특강



참여대상
- 다문화가정 자녀 (8~16세)
  - A팀: 8~11세, 10명
  - B팀: 12~16세, 10명

일시
- 2026.09.12.(토)
  A팀: 10:00 ~ 12:00
  B팀: 13:00 ~ 14:00

장소
- 평택시가족센터 1층 (서정로 295)

활동내용
-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방법 배우기

모집기간
- 2026.08.21.(금) ~ 2026.09.07.(월)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 신청

문의사항
- 가족교육팀 031-615-3904

*실제로 '송탄소방서'에서 근무하시는 응급구조사님이 오십니다 :)

A팀 신청 | B팀 신청

평택시가족센터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열린 태도 키워요!

평택시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와쿠와쿠 일본어'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 공동육아나눔터3호점은 8월 4일과 11일, 관내 유아 및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놀이로 만나는 일본어 첫걸음 '와쿠와쿠 일본어'를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유아와 아동이 놀이를 매개로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친숙하게 접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태도를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어린 시기부터 다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하며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열린 태도를 키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그림 자료를 활용해 일본어 인사말과 친숙한 단어를 따라 말해보고, 이를 신체놀이 활동과 연계해 직접 표현하며 일본어와 일본 문화에 대한 흥미를 높였다. 특히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 참여해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고, 놀이 속에서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경험하며 가족 간 소통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아이와 함께 일본어를 재미있게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 "놀이로 진행되어 아이가 부담 없이 즐겁게 참여했다." 등의 긍정적인 소감을 전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다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것은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좋은 출발점이 된다."며 "앞으로도 가족들이 다양한 문화를 즐겁게 경험하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3호점은 양육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가족 간 소통과 교류를 지원하는 열린 공동체 공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지은 기자

평택시가족센터, 이중언어교육지원 부모의 역할 배우는 부모코칭특강

평택시가족센터는 8월 22일, 이중언어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결혼이민자 학부모 26명을 대상으로 '부모코칭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이중언어교육에 참여하는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높이고, 가정에서 효과적으로 학습을 지원하는 부모의 역할과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이중언어 아이들의 특별한 무기'를 시작으로 '마음의 문을 여는 대화법', '우리 아이 맞춤형 미션 계획표'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돕기 위한 이론교육을 통해 자녀의 학습 특성과 부모의 역할을 살펴보고, 자녀의 학습계획을 직접 구성하는 실습에도 참여했다. 또한 질의응답을 통해 자녀의 학습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공유했다.

특히 자녀와 공부에 대해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과 자녀에게 맞는 학습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부모가 자녀의 학습을 일방적으로 지도하기보다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 고민했다.

평택시가족센터는 이중언어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언어 구사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부모교육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평택시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창의 독서 '북(Book)적북적 책놀이터' 운영



평택시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은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매주 목요일, 관내 6·7세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책으로 키우는 창의 독서 프로그램 '북(Book)적북적 책놀이터'를 운영했다.

참여 아동들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그림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 속 낱말과 표현을 살펴보며, 등장인물의 행동과 상황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등 책의 내용을 여러 방식으로 경험했다. 아동들은 그림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단어를 익히고, 소리와 움직임으로 표현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글을 접하고 언어 표현의 즐거움을 경험했다.

특히 그림책 속 재미있는 이야기와 친숙한 표현에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또한 친구들과 생각과 느낌을 나누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책 읽기에 대한 흥미와 언어 표현력을 높였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보호자들은 "아이와 함께 그림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았고, 책에 나온 단어나 표현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어 유익했다", "아이가 평소보다 책에 관심을 보이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은미 센터장은 "그림책을 활용한 자연스러운 언어 경험이 아이들의 한글에 대한 흥미와 표현력을 키우는 데 긍정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책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독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아동과 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열린 공간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문의 031-668-9445

이지은 기자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8월 22일, 관내 다양한 가족 35가정 104명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개선 그림자 공연 '양할머니의 스프'를 진행했다. 이번 공연은 가족이 함께 다양한 문화와 환경을 이해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마음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그림자극을 통해 다문화와 문화다양성의 의미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고, 가족 간 자연스러운 대화와 소통을 이끌어냈다.

이날 참여 가족들은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를 담은 「양할머니의 스프」를 관람하며 등장인물의 감정과 상황에 공감하고,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특히 빛과 그림자를 활용한 생동감 있는 연출과 흥미로운 스토리를 통해 어린이들의 관심과 몰입을 이끌어내며 배려와 존중, 다양성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 가족들은 "아이와 함께 다른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어 좋았다.", "공연 후 아이와 다른 문화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은미 센터장은 "아동들이 가족과 함께 다양한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과 교육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문화다양성 존중과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교육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며 다문화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이지은 기자

평택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멘토링 중간평가회 및 활동 진행



평택시가족센터는 지난 8월 8일, 평택시가족센터 서부분소에서 대학생 멘토와 다문화가족 자녀 멘티, 보호자 등 총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란도란 짝꿍 멘토링' 중간평가회 및 화과자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상반기 멘토링 활동을 돌아보고 멘토와 멘티 간의 관계와 활동을 점검하며, 하반기 멘토링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각 조의 사례를 공유하며 경험을 나누는 한편, 하반기 활동 계획을 세우고 멘토와 멘티가 함께 과일맛 화과자를 만들며 소통과 친밀감을 쌓았다.

참여자들은 "오늘 프로그램을 통해 하반기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동기부여와 원동력을 얻었다."고 말했다. 특히 서로의 멘토링 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체험활동에 참여하며 멘토와 멘티 간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2022년부터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5기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평택시가족센터, 지역활성화지원사업 '서부부모아카데미-당당한 부모되기' 진행



평택시가족센터는 지난 8월 21일과 22일, 서부분소에서 서부권역에 거주하는 7~12세 자녀와 부모 총 20명(10가족)을 대상으로 '당당한 부모되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부부모아카데미의 일환으로 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관계 형성과 상호작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부모교육을 통해 자녀의 발달 특성과 부모의 양육태도 및 훈육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 부모와 자녀 간 적절한 소통과 사회성 증진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아트테라피를 매개로 한 집단상담에서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안전하게 표현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부모와 자녀 간 긍정적인 의사소통과 상호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부모교육을 통해 나 자신을 점검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 "아이와의 대화법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올바른 훈육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어 좋았다.", "미술매개체를 활용하여 아이와 몸으로 놀아주고 표현하기 힘든 아이의 감정을 잘 알 수 있었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를 통해 부모는 자신의 감정과 양육 태도를 돌아보고 자녀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며, 부모와 자녀 간 공감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이은미 센터장은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부모님이 삶을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라며 "세상에서 가장 당당하고 행복한 부모로 설 수 있도록 언제나 곁에서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서부권역에 거주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